

◎ 91년 5월 15일 ◎

☐자료 가1-47 (수사기록 349)

기 안 용 지
(전화 530 - 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296
시행일자 1991. 5. 15.
주임검사 윤 석 만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
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
니 다음 2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
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진술서 필적 2매.
 2. 김기철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1매. 끝.

☐자료 가1-48 (수사기록 352~37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 23110 - 5237 (698-2012) 1991. 5. 15.
수 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 조 검사 신 상 규
제 목 필적감정의뢰 회보

1. 강력23110 - 011963, 012032 (91. 5. 10, 13)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296 (전화: 530-3731)	기안용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검사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91. 5. 15.		
보좌 직장검사	김기철	합조 기관	문서통계 1991. 5. 15 5세관
주임 검사	윤석만		
기안 제일자	신상규		
경유 수신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문서감정실장	검사장	발송인 1991. 5. 15
제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2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진술서 필적 2매.			
2. 김기철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1매. 끝.			
동자문서입니다			

보합니다.

첨 부: 감정서 1부
사 진 매
증거물 중1, 2, 3, 4, 5호 5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감정서

1991년 5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문서감정실

외뢰근시령: 서울지방검찰청

353

감 정 서

이화삼 23110호 (대 강력 23110-011963 호 1991 년 5 월 13 일)

의뢰관서명: 서울지방 검찰청

- 1. 증거물: 가. 증1, 김기설명의 유서 2매.
- 나.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
- 다. 증3, 김기설의 주민등록 본실신고서 1매.
- 라. 증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
- 마. 증5, 김기설에게 증정한 책표지 필적 1부..

2. 감정사항: 증1,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과 김기설관련 증2,3,4,5 필적과 이동여부.

필적상호간의 동작성 여부

감정방법: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配字)의 형태, 필세(筆勢), 필순(筆順)에 의한 운필(運筆)순서, 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운필(運筆)상태를 검사하고 기필(起筆)부분과 종필(終筆)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숙련과 미숙련 차이,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특징, 개인의 잠재습성등을 주시 검사 하였음.

2년

4. 감정소견: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 정밀감사에서 - - - - -

가. 증1, 김기설명의 유서는 속필로 기재한 숙련된 필적으로서, 전체적인 필적에서 밀관성있는 특징이 관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 필적을 대조한바, 첨부된 사진제 1-15호의 주선표시와 같이 증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필적과는 필의구성과 배자의 형태, 기필부분과 종필형태, 자음과 모음등에서 상호 상사점이 관찰되고 필획간의 연결부분과 교차되는 위치, 운필방향, 특정필획의 침범및 자음을 두종류로 기재하는등 개인의 잠재습성등에서도 특징적인 상사점이 다수 관찰됨.

나.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증3, 주민등록 본실신고서 필적은 모두 정서로 기재된 필적으로서, 증2,3,은 상호 공통적인 특징 상사점이 관찰되며, 증1, 유서필적과는 외형상의 구성과 기필부분의 세리프형태 "0" 을 좌우로 기재하는 습성, 운필과도등에서는 차이점이 관찰되지만 종필방향, 필획의 연결상태, 자음의 구성등에서는 부분적인 유사점도 있으며, 증2,3 필적이 정서로 기재된 반면에 유서 필적은 속필로 기재되었고, 필기구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와 속필및 다른 필 기구에 의한 변화 상태를 알수없어서 이동여부를 논단할수 없음.

다. 증1, 유서 필적과 증5, 김기설에게 증정한 책표지에 기재된 필적은 외형상의 기재형태와 습성등에서 특징적인 상사점이 관찰되지 아니하지만, 전체적인 대조문자가 부족하여 이동여부를 논단할수가 없음.

첨부사진 20 매.

5.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조건과 같이 -----

가. 증1, 유서 필적과 증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

나.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증3, 주민등록 본실신고서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으로서, 증1, 유서 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수없어서 이동여부를 논단할수 없음.

다. 증1, 유서 필적과 증5, 책표지에 기재된 필적은 대조문자 부족으로 이동여부를 논단할수가 없음.

1991 년 5 월 15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 경

(사진계 / 호)

하기기는 여자가
생각합니다.
한로라는 것을 해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ㄱ線표시는 증4, 업무일지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2호)

동행기만을 일삼아
정명전을 신조
동행권을 위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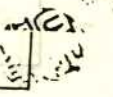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일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사진제 3호)

다르게 들르기
이땅의 민중은 위
리민속이 일도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일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사진계 4 호)

대치역의 시육살이
태백이동 서쪽사익차
은. 제봉안보나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및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차문서입니다

(사진계 5 호)

지능의 정권도 곱
레이상 우리에게
안겨 주지 마요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및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차문서입니다

모든 물체는 대
정미로. 선택
수입하시오.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일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하나가 되어 지인
노래가 정찬은 양
미음처럼 재취를
나 드니 31076는 8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일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8 호)

1 아크기 상.
위해 무엇을 해
결호이겠지요.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인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9 호)

하지만 이제 기사
아닌 기록의 아류
마지막, 혼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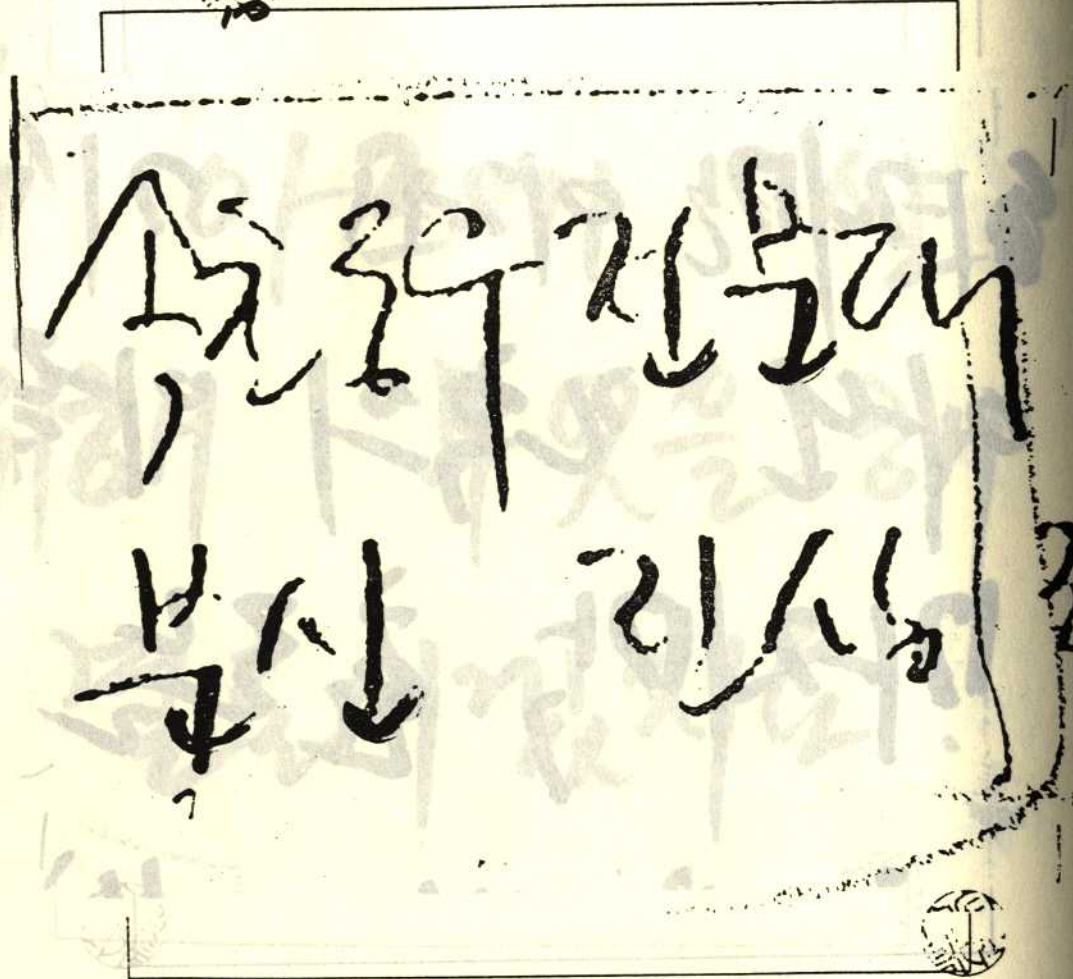


증1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4. 영우인리와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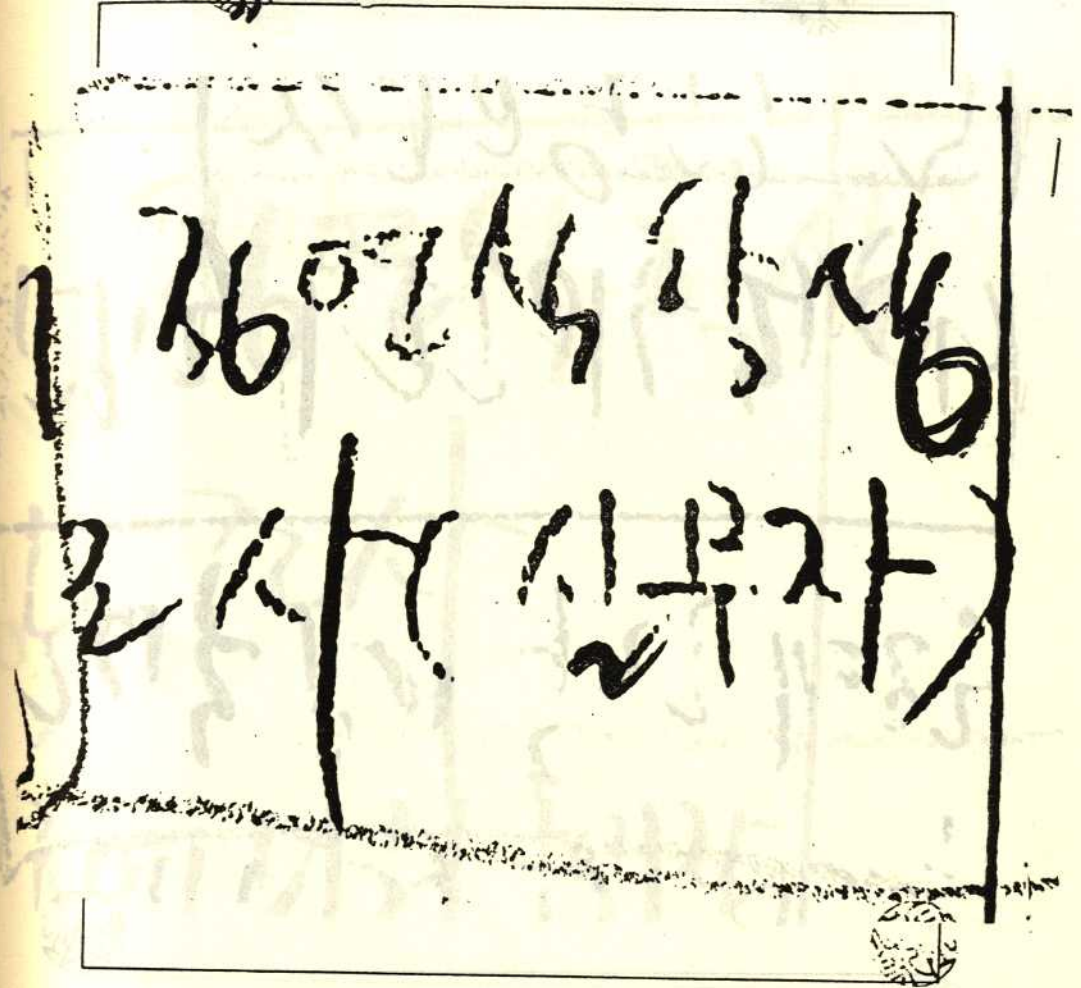


증4. 업무일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1. 유사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사문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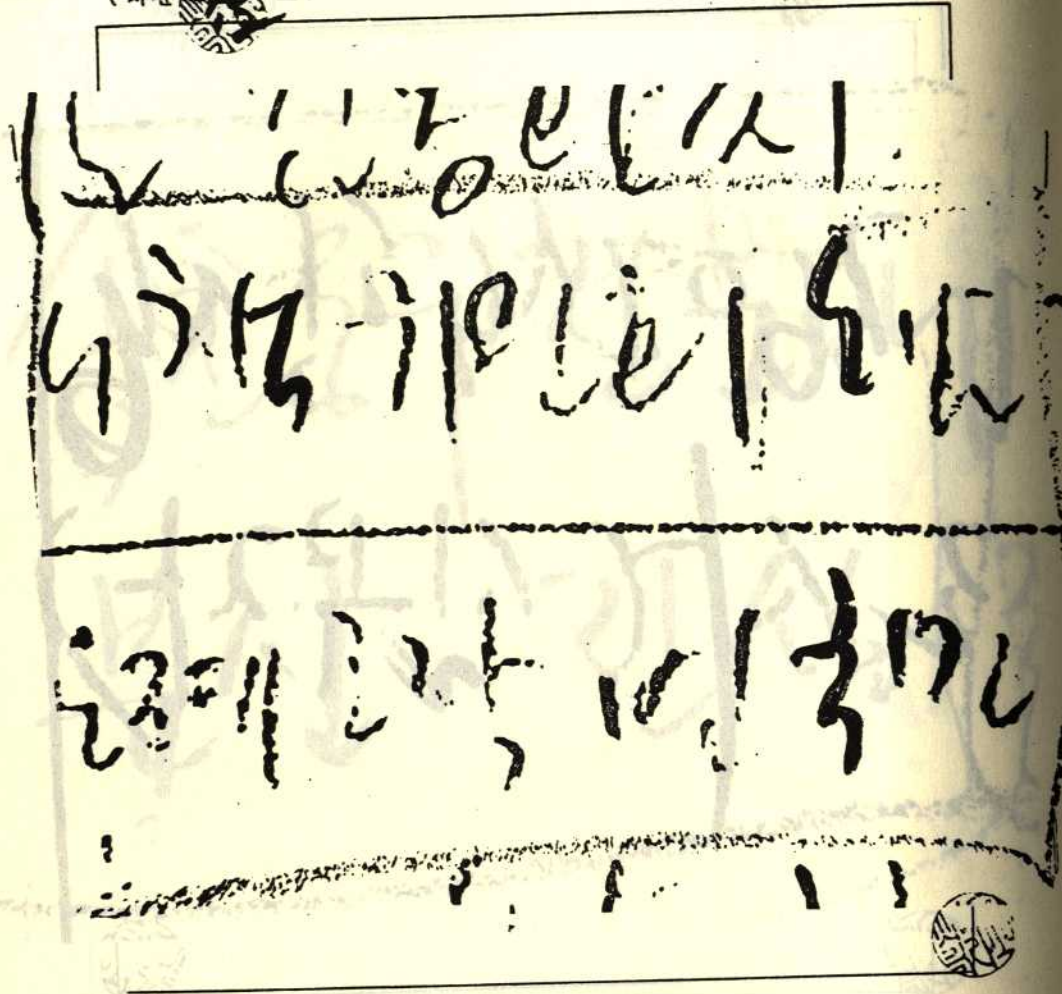


증4. 업무일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1. 유사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문서입니다

(사진 제 7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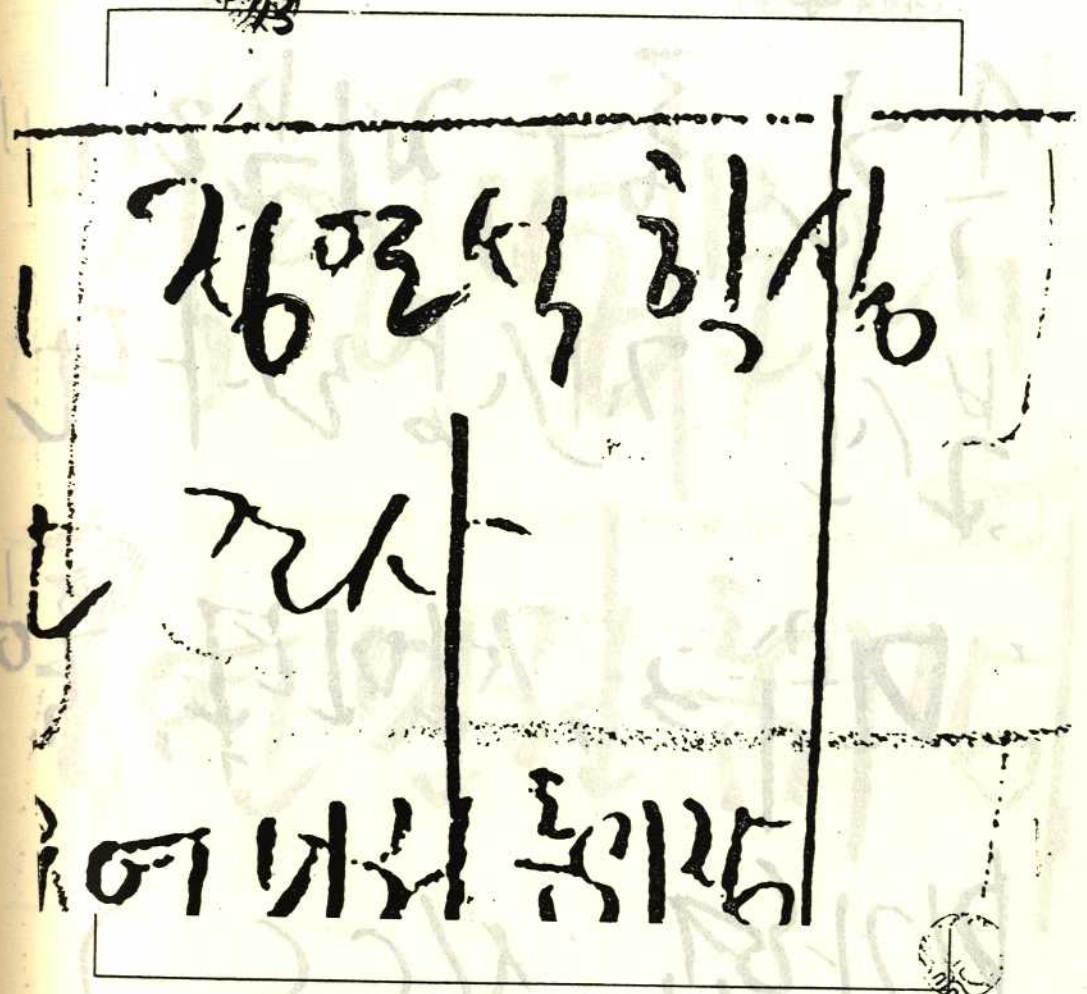


증4. 업무일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1. 유사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제 73 호)



증4. 업무일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1. 유사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계 ~~호~~)

수직 중구 지붕리
부식 지상리사단

마구, 지인리, 기

민가업, NCC

중4. 업무일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중). 유사철적리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입니다

(사진계 ~~호~~)

지인리 지붕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입니다

중4. 업무일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중). 유사철적리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입니다

(사진제 10 호)

김기설	주민등록 번호
경기도 과천시 광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15-2	
가방과 함께	

증3. 주민등록 본실신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2.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소입니다

(사진제 11 호)

김기설의 주서요
삼촌 기설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3.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소입니다

(사진계 2호)

누누

우리혜정이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3.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계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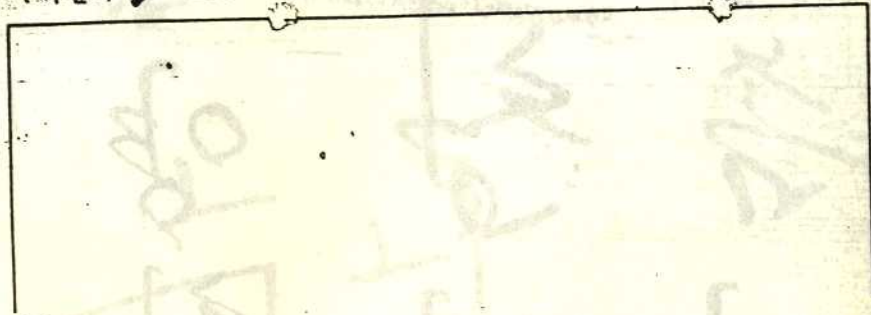
양친가 퇴길
항행호
충리후있고

증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증3.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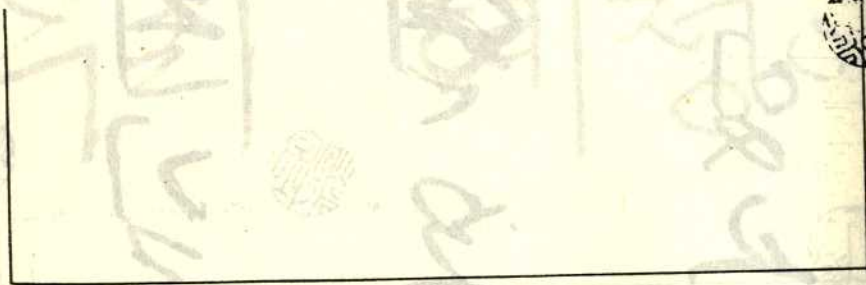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계 20호)



국민연립 김기철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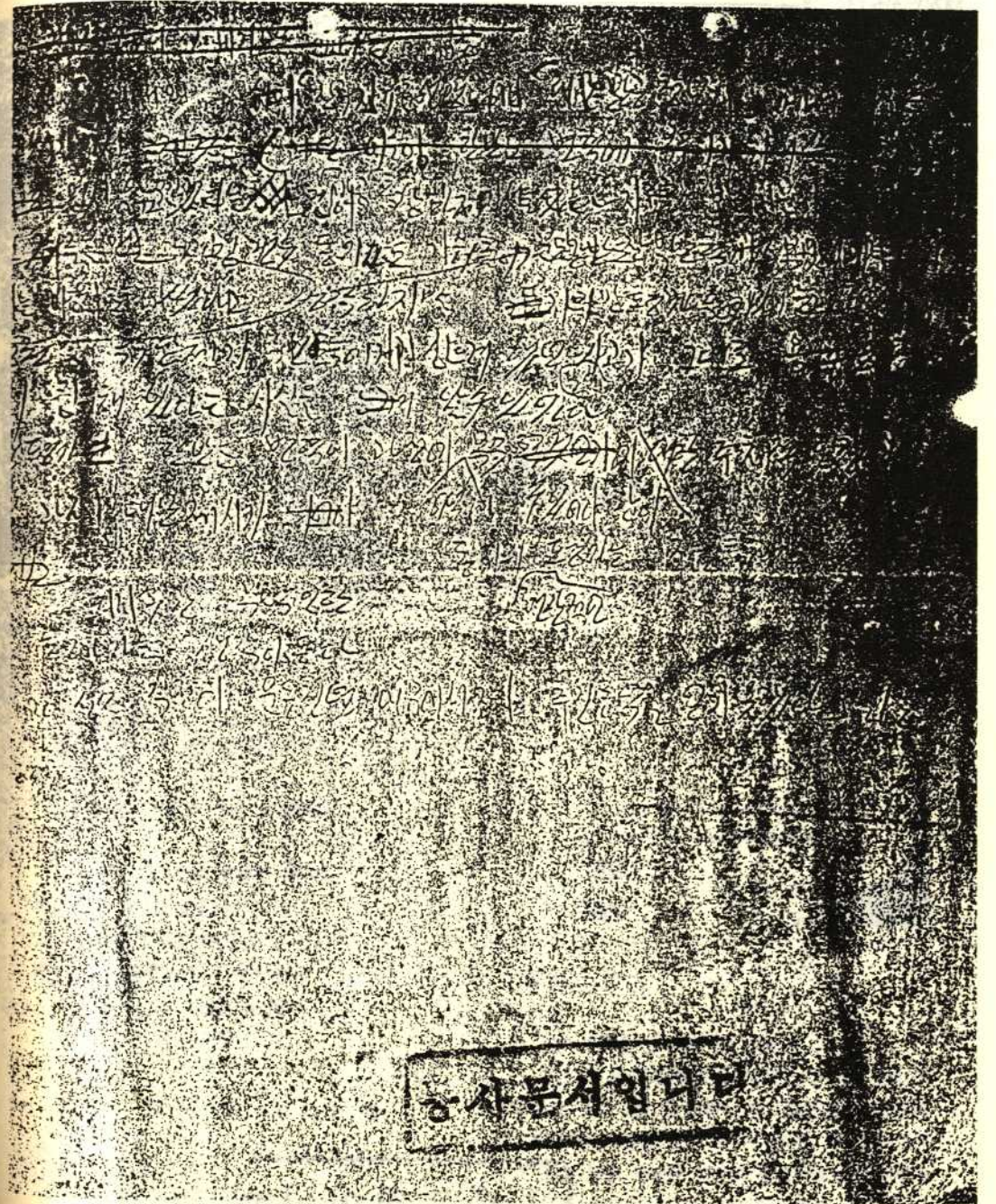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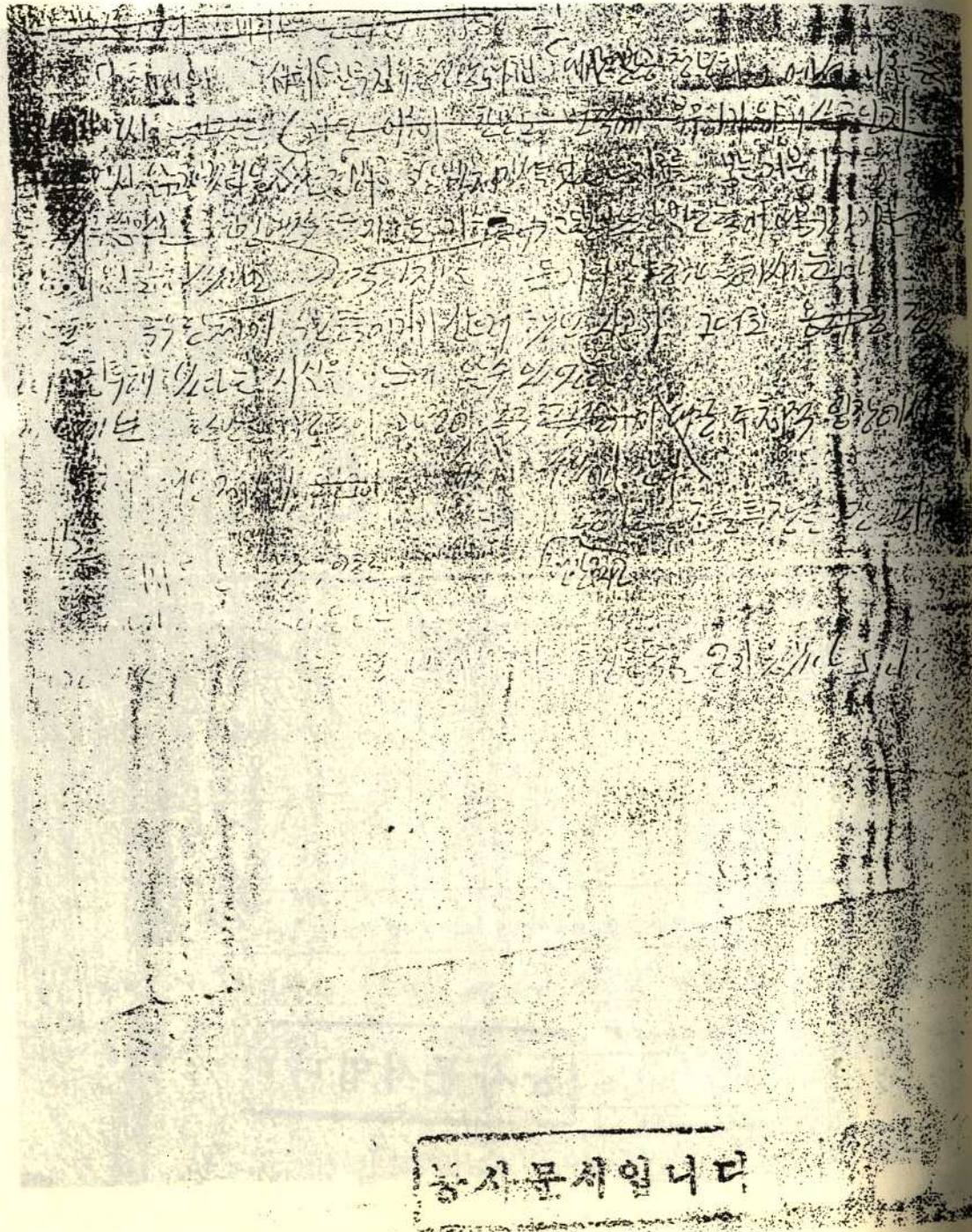
중5, 책표지에 기재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외형상의 부별적인 차이점이 있으나 비로라가
부족하로. 특강의 비로라가 양라미 이종에 부를
노란하기가 아래로 상리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사문서임다



◎ 91년 5월 16일 ◎

☐자료 가-1-49 (수사기록 350~351)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 수색 영장

영장번호 199
 사건번호
 사건명
 피의자 강기훈
 생년월일 64.3.29.생
 직업 무직
 주거 서울

압수할 물건 강기훈 소유의 노트 등
 서류일체
 수색할 장소 서울

신체, 물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25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16.

판사 장승화

집행일시 19년 월 일 시 분

압수할 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 수색 영장

영장번호 199
 사건번호
 사건명
 피의자 강기훈
 생년월일 64.3.29.생
 직업 무직
 주거 서울
 압수할 물건 강기훈 소유의 노트 등
 수색할 장소 서울

신체, 물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 수색을 한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25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16.
 판사 장승화

19년 월 일 시 분
 집행일시
 압수할 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동사무서입니다

"별 지"

0. 압수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옥상에서 김기설(25세)이 전신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투신현장의 유류품 중에서 김기설 명의의 2통이 발견되었는바, 김기설의 유족이 제출한 김기설의 자필 필적과 위 유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위 유서의 필적이 누구의 것

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김기설의 애인 홍성은이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메모의 필적과 유사한 필적을 입수하여 위 유서상의 필적과의 동일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김기설과 홍성은을 소개해 준 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가-1-50 (수사기록 379~391)

압 수 조 서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 박경순은 검찰주사(보) 임영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년 5월 16일 13시 30분에서 동일 15시

경까지 서울 성동구 자양동 227-158 소재 강기훈집에 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16.
서울 지방 검 찰 청
검 사 박 경 순
검찰주사(보) 임 영 근

압 수 경 위

서울형사지방법원 장승화 판사의 1991. 5. 16자 발행의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고 위 주거지에 임하여 강기훈의 모인 권태평과 동생 강기천에게 제시한 후, 동인들의 입회하에 강기훈의 공부방과 다락방을 수색하여 이를 압수하다.

압 수 목 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9-1	수신 : 김정훈 발신 : 김명훈	1매	서울 강기훈	좌 동	
2	문장의 목적	1매	"	"	
3	서대협 지지성명서	1매	"	"	
4	폭행건-태림사(성적유린)	1매	"	"	
5	"민중시대" 11호 평가보고서	1매	"	"	
6	수강신청서(84년 3학년 1학기)	1매	"	"	
7	시·시조 모음집	1권	"	"	
8	위험(낙서)	1매	"	"	
9	수강노트(화학과 3년)	1권	"	"	
10	사투의 의의	4매	"	"	
11	팜프렛(조성만 추모 100일제)	9매	"	"	
12	진정한 노동행제의 벗·민중의 당 등	38매	"	"	
13	민중시대 등 (88.2.26.)	1묶음	"	"	
14	회로정리집	1권	"	"	
15	영어단어집	1권	"	"	
16	what is chap 2-End	9점	"	"	
17	현재의 정세와 하반기 방향	5매	"	"	

압 수 목 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18	수강노트(양론)	1권	서울 강기훈	좌 동	
19	노트(성수중학교 3학년)	1권	"	"	
20	노트(물리)	1권	"	"	
21	노동자의 길	1권	"	"	
22	도서열람증	1매	"	"	
23	자주·민주·통일 수첩	1권	"	"	
24	일터에서 90	1권	"	"	
25	전화수첩	2권	"	"	
26	학생증	1권	"	"	
27	전국노동자총단결 테이프	1개	"	"	
28	영어씨브노트	1권	"	"	
29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강혁)	1권	"	"	
30	노동해방문학(89.10월호)	1권	"	"	
31	" (89.11월호)	1권	"	"	
32	중국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김계일)	1권	"	"	
33	역사와 사회(84.9월호)	1권	"	"	
34	한국사회의 계급연구(김진균)	1권	"	"	
35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1권	"	"	
36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고병식 역)	1권	"	"	
37	세계노동운동사 1 (정동철 역)	1권	"	"	
38	호지명(성원편집부 역)	1권	"	"	
39	루카치(정혜선 역)	1권	"	"	
40	국가계급사회운동 (김학노 역)	1권	"	"	
41	아리랑 2	1권	"	"	
42	세계노동운동 약사(백원담 역)	1권	"	"	
43	자본주의란 무엇인가(김부리 역)	1권	"	"	
44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1권	"	"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45	그룹노동조합협의의 연구	1권	서울 강기훈	좌 동	
46	중국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의 역사 1.	1권	"	"	
47	노동해방문학 89년 6·7호	1권	"	"	
48	세계노동운동사 2 (정동철 역)	1권	"	"	
49	스탈린선집(서중권 역)	1권	"	"	
50	쿠바혁명사(레오휴 비만 외 1저)	1권	"	"	
51	계급분석의 기초이론(박준식역)	1권	"	"	
52	단결과 전진 1,2호 합본	1권	"	"	
53	현대유물론의 기본과제	1권	"	"	
54	국가와 혁명(김영철 역)	1권	"	"	
55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 1(황인명역)	1권	"	"	
56	임금인상투쟁지침서(백산서당)	1권	"	"	
57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오민영 역)	1권	"	"	
58	한걸음 앞으로 두걸음 뒤로 (조자민역)	1권	"	"	
59	내디딤(28호)	1권	"	"	
60	폭력, 부정선거를 딛고 일어나	1묶음	"	"	
61	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전노협편)	1권	"	"	
62	6월 민주화대투쟁(민중사)	1권	"	"	
63	국가독점자본주의론(조민역)	1권	"	"	
64	주체사상 비판(이진경 역)	1권	"	"	
65	중국현대혁명사	1권	"	"	
66	민주경제(허드슨 저)	1권	"	"	
67	노동해방문학(89.9월호)	1권	"	"	
68	대학일본어교본(박양근 저)	1권	"	"	
69	모택동 사상연구 1	1권	"	"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70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장시원 역)	1권	서울 강기훈	좌 동	
71	민주구국의 길(김대중)	1권	"	"	
72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한중구 역)	1권	"	"	
73	늑두서평 3	1권	"	"	
74	대통령 선거법령집(1987. 선관위)	1권	"	"	
75	샤르트르와의 계약결혼 (이석봉역)	1권	"	"	
76	러시아혁명사(한국올림편집부역)	1권	"	"	
77	노동계급 창간호	1권	"	"	
78	노동계급 3호	1권	"	"	
79	노동자의 길 제37호	1권	"	"	
80	" 제39호	1권	"	"	
81	노동자의 깃발 22호	1권	"	"	
82	노동운동 (89.9)	1권	"	"	
83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신인철)	1권	"	"	
84	귀중한 은혜	1권	"	"	
85	노동자의 길 38호	1권	"	"	
86	러시아 마스주의(이성혁역)	1권	"	"	
87	노동해방문학 (89.8월호)	1권	"	"	
88	돈황제(백시종)	1권	"	"	
89	교양도서목록(세계기획구성)	1권	"	"	
90	주체사상비판 2 (이진경 역)	1권	"	"	
91	들불 창간호	1권	"	"	
92	안양독서화보 5호	1권	"	"	
93	안양독서화보 4호	1권	"	"	
94	안노회보 2회	1권	"	"	
95	노동자의 진실비판	1권	"	"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96	혁명주의자의 항의	1권	서울 기훈	좌 동	
97	노동자의 진실	1권	"	"	
98	혁명의 불꽃 2, 3, 4호	1권	"	"	
99	자료모음	1권	"	"	
100	혁명의 불꽃 10호	1권	"	"	
101	" 8호	1권	"	"	
102	노동자의 깃발 16호	1권	"	"	
103	혁명의 불꽃 10호	1권	"	"	
104	혁명의 불꽃(44년 5월 22일)	1권	"	"	
105	가정통신카드	2매	"	"	
106	왜 우리는 선봉그룹에서 분리선 언을 하는가	1권	"	"	
107	실험무기화학(제퍼리파스 저)	1권	"	"	
108	미로(상)	1권	"	"	
109	미로(하)	1권	"	"	
110	명함(박정수 외 3)	4매	"	"	
111	재건대회 의사록 (1)	1매	"	"	
112	" (2)	1매	"	"	
113	" (3)	1매	"	"	
114	" (4)	1매	"	"	
115	" (5)	1매	"	"	
116	" (6)	1매	"	"	
117	생일축하카드	1매	"	"	
118	노동자의 길 41호	1권	"	"	
119	노동계급 4호	1권	"	"	
120	노동자의 길 114	1권	"	"	
121	우리 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1권	"	"	
122	현시기 우리의 전략적 과제	1권	"	"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123	혁명주의의 깃발을 높이들자	1권	서울 강기훈	좌 동	
124	영등포올구 재선거 참여투쟁을	1권	"	"	
125	6월이후의 정치정세와 통일투쟁을	1묶음	"	"	
126	Two Tac 메모	13장	"	"	
127	신나통	1개	"	"	
128	디젤통(알코통 포함)	1개	"	"	

▣자료 가1-51 (수사기록 392~393)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 수색 영장

영장번호 200

사건번호

사건명

피의자 이영미

생년월일

직업 박원상사

주거 서울

압수할 물건 이영미 소유의 노트 등 서류 일체

수색할 장소 서울

신체, 물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25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16.

판사 장승화

집행일시 1991년 5월 16일 13시 00분

압수할 물건 '엔엘의 정치노선' 유인물 복사본 1부 등 9점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91. 5.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안재호

"별지"

0.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옥상에서 김기설(25세)이 전신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투신현장의 유류품 중에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통이 발견되었는 바, 김기설의 유족이 제출한 김기설의 자필 필적과 위 유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위 유서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김기설의 애인 홍성은이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메모의 필적과 유사한 필적을 입수하여 위 유서상의 필적과의 동일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김기설과 홍성은을 소개해준 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가-1-52 (수사기록 394~395)

압수조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
입찰은 검찰주사(보) 안재호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
위와 같이 1991년 5월 16일 13:00분 서울 성동구 구의
동 235의 46 이영미집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
하다

1991. 5.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임철
검찰주사(보) 안재호

압수경위

위 장소에 임하여 이영미의 모 문정자에게 서울형
사지방법원 판사 장승화 발부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하고 별지목록의 물건의 압수하다.

□자료 가-1-53 (396~402)

자술서

본적 서울시
주소 서울시
성명 홍성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66. 10. 25.

5월 7일 ---10) 7:10-15전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약속장소는 저녁 7:30 신촌 북지다방에서 만나기로 했
다. 둘다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일단 식사하기로
했다. 식사가 준비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
다. 대답을 안 하길래 주로 내 얘기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Cafe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김 : 5월 4일 집회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홍 :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
 기를 하면 박수로 호응을 해주었고, 구호도 같이
 외쳤다.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서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12-1	'연철의 정치노선' 유인물복사본	1부	서울	이영미	
2	'피디의 정치노선' 유인물복사본	1부	"	"	
3	'시에이의 정치노선' 유인물복사본	1부	"	"	
4	단국민주동우회 회원카드	8매	"	"	
5	대학노트	1권	"	"	
6	알림종이	1부	"	"	
7	운영위원회 모집공고	1부	"	"	
8	사무회 회의	1부	"	"	
9	분단토론	1부	"	"	

10) 지문으로 판독 불가(2자).

김 : 이런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겠는가?
홍 :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집회를
통해서 또는 유인물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극한적인 방법으로는 분신을 통
해서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김 : 분신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홍 : 잘 모르겠다.
김 : 분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
홍 : 잘 모르겠다. 우리 학교 최덕수가 죽었는데 그때
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매우 폐쇄적이
고 지친 상태라고 한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오려려 더 힘든 것이 아닌가?
김 : 분신한 사람은 모두 그런 상태일까?
홍 : 잘 모르겠다. 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김 : 자기 의지에 의해 그럴 것이다.
홍 : 잘 모르겠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빨리 말해달라.
김 : 미루어 짐작해라.
홍 : (잠시 울다가) 그럼 우리는 왜 이제까지 만났느
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 그만두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꾸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김기철씨를 붙
잡았고 계속 울었다. 그리고 cafe를 나와 아현까지 걸
어갔다.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물론 나
도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헤어진 시각은 저녁 10
시 30분쯤이었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보니 11:30분쯤
이었다. 저녁 12시가 다 되어 문정에게서 전화가 왔
다. 잠깐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민중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12시 30분쯤 만났는데 문정이 혼자자 아니라 장
준호씨도 함께 있었다. 그 시간에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방으로 왔다. 처음에는 농담 좀 하다가 장
준호씨가 기철씨 언제 만났느냐? 요즘 이상하게 행동
하지 않느냐? 연대로 여자 후배가 찾아왔는데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만났다. 내일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 왜냐하면 8일 이후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집에서 가까운 신촌쪽이 되지 않을

까? 그랬더니 둘다 나에게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물
었다. 왜 안 말려졌느냐? 감정적으로 호소를 많이 했
지만 말릴 것을 포기 했다.
장준호 : 설득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하고 친한 것
같느냐?
홍 : 서준식씨, 진관 스님이 친한 것 같다. 기철씨가
나 보고 쓰라고 수첩을 주었다.
장준호 : 걱정 말아라.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고 있으
니 걱정하지 말아라. 꼭 붙잡을 수 있다.
새벽에 전화할 지 모르니 전화하라고 연대 전화번호
호를 적어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안심되었고 생각보다
잘 잤다.
오전 6:30분쯤 기철씨가 전화를 했다. 전화 내용은
홍 : 어디에 있느냐?
김 : 이대쪽에 있다.
홍 : 무엇을 했느냐?
김 : 다른 데에 있었다. 수업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홍 :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연대로 전화하니
아무도 안 받았다. 출근 준비를 하고 건대역에서 오전
7:20분쯤 다시 연대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자였다. 내가 기철씨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임근재씨
와 새벽에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임근재씨요?
하고 물으니 임근재씨를 바꿔주었다. 임근재씨는 새벽
에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다온다고 하고 사라졌다. 계
속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때 기철씨가 전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왔다. 오전 9
시 5-6분전 연대로 다시 전화했다. 전화 받은 사람은
학생 같은데 기철씨 친구라고 하니 상황이 나빠졌다.
학교로 와라라고 대답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연대
로 곧장 갔다. 학교로 가니 영미와 진수형이 있는 것
을 보고 끝이 난 줄 알았다. 그때 내 짐은 핸드백과
쇼팽백 속에 책 2권, 공책 1권, 화장지, 실뭉치 등이 있었
다. 일단 3층에서 내려와 영미에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 영안실에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는다고

정신이 없었다. 다시 3층으로 올라와 총학 사무실에 있었다. 계속 울고 있었는데 1-2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참석했으면 하는 뜻을 받았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쉬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주위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그리고 가족들이 안 왔기 때문에 가깝게 지낸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 여겨 응했다. 인터뷰 내용은 어제 자술서 내용과 같다. 그리고 신문기자들과도 인터뷰를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내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점심을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식사하기로 했다. 식사한 곳은 학생식당이었다.

내 짐은 한꺼번에 쇼핑백에 넣고 학생회관 3층에 두었다. 식사를 끝내고 영안실로 갔다. 가서 분향하고 좀 앉아 있다가 계속해서 돌아다녔다. 영안실과 학생회관 사이를 여러번 왔다갔다 했다. 저녁 10:00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하느라고 집에 못 갈 것 같아 집으로 전화했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전화를 하고 내가 할 일이 없길래 영안실로 가서 기설씨 후배들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에 학생회관에 와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오전 8:00쯤 일어나 학생회관에만 갇혀 있으니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 돌아다녔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안실로, 학생회관으로 왔다갔다 했다. 연대에서 집회 구경도 하고... 사람들이 모두 5월 9일 집회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 나는 학생회관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오후 10:30 이후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5월 10일은 수업 있으므로 오후 11:00쯤 연대를 나와 12:00쯤 집에 들어갔다. 수업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 4:00쯤 연대로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영안실에 갔다가, 돌아가는 상황도 들었다. 그날 오후 오후 7:00 명동성당에서 김기설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에 왔다. 5월 11일은 하루종일 집에서 잠을 청하고, TV도 보았다. 영미가 잠깐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오후 10:30쯤 집에 들어왔다. 5월 12일 아침 신문을 보고 장례식이 있는 줄 알고 연대로 갔다. 오전 11:30쯤 도착했기 때문에 연대에서 나오는 행렬을 보았다. 거기서부터 합류하고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까지 갔다. 관 묻는 것을 보고 일행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종로5가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다.

●수첩

5월 7일 오후 cafe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기설씨가 수첩을 보더니 자기는 필요없고, 여백은 남아 있으니 나를 주면서 쓰라고 한다. 헤어질 때 핸드백 속에 넣어 가지고 와 집에서 잠깐 훑어보았다. 그 다음날 수업에 들어갈 때 쇼핑백 속에 넣어 가져갔다. 그 사람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강했기 때문에 내 수첩이 아니니까 그 사람 즐려고, 또한 만나서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다. 학교에서 실험복을 꺼내고 수업을 마치고 다시 책과 시험복을 같이 넣었다. 연대에 와서 내 짐은 같이 연대 학생회관에 놓았다. 집에 올 때 쇼핑백과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집에 와서 보니 쇼핑백 속에 내 짐 외에도 휴지, 신문 등의 잡동사니가 함께 있었다. 수첩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5월 8일 오후 12:00쯤 연대에 가서 장준호씨를 먼저 찾으려고 했으나 진수와 영미를 보고 다시 학생회관 1층 로비로 왔다. 그때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첩이야기가 나와 쇼핑백 속에 있었던 수첩을 꺼내 주었다. 그 사람은 안경을 쓰고, 키는 175센치, 좀 뚱뚱한 편이었다. 그리고 한대 민동 간사 또는 간부였다는 말을 들었다. 수첩을 건네 주었을 때 영미와 진수형이 같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때 잠바(청색 또는 초록색)와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후에 영안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장지인 모란공원에서 보았다. 만나는 사람들을 보아 전민련 관계자일 것이다.

5월 13일 집으로 형사가 찾아왔다. 형사가 조사할 것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 나갈 준비를 마칠 즈음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이현우씨를 찾았으나 없다고 해 말투로 보아 박선우씨 같았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고 물으니 그러지 말고 누군가 같이 가야 한다, 사람들이 없으니 연대로 전화해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연대로 전화하니 전민련 관계자를 찾으니 없다, 모두 명지대로 갔다고 해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박선우씨를 찾으니

참고인 진술이니 가도 괜찮다, 48시간 이내에 끝날 것이다. 김기설씨 편지를 찾고 있는데 쥐도 되느냐? 주어도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형사와 같이 검찰로 왔다.

1991년 5월 16일
홍 성 은

☐자료 가-1-54 (수사기록 403)

자술서 (2)

본 적 서울시
주 소 서울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66. 10. 25.

김기설씨가 준 수첩을 연대에서 전민련 관계자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진수 형에게 얼핏 들었는데 한대 민동 간사 또는 부회장이었다는 것을 들었고 이름은 컷가에서 땀들었는데 김기설씨 장례식 팸플릿을 보고 이름이 원순용이라는 것을 찾았다. 그리고 팸플릿에 표시했다.

1991년 5월 16일
홍 성 은

* 장례식 팸플릿 <생략>11)

☐자료 가-1-55 (수사기록 404~408)

진 술 서

성 명 이영미(李英美)
연 령 23세 (1967. 6. 5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서울시
주 거 서울시

성 별 여

자택전화
직업 강사 직장 양천구 소재 속샘학원
위의 사람은 사건의 참고인으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1. 본인은 1985년 단국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9년 졸업하였습니다.

1. 홍성은을 알게 된 경위는 단국대학교 내에 있는 과학관 건물에 화학과와 과학교육학과(홍성은 재학)가 있는 관계로 오다가다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별다른 만남이 없다가 작년말이나 올해초쯤 홍성은이 이사를 오게 되어(화양리, 제가 사는 구의동과 가까운 거리임) 취직문제 등으로 고민하곤 하던 홍성은과 몇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1. 강기훈과는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어서(같은 화학과) 이름과 얼굴 정도 알았었고, 지하철 안에서 만나게 되어 전화번호를 주었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때가 90년 초쯤이었음). 처음에 만났을 때, 많이 반가워했었고 전화연락이 와서, 학교(과) 후배나 선배와의 교제가 별로 없어서 만나는 것을 반가워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전민련)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고, 저도 별로 물어보지 않아서 무엇에 관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나 Computer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저에 대해서 의식적인 면에 대해 강요하거나, 같이 가자고 한 곳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바쁜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1. 김기설에 대해서는 홍성은이가 만나고 있다고, 전민련에 있다고 이야기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은과 김기설이 만나게 된 동기는 둘다 인상이 좋고 선하다고 생각한 강기훈 선배님이 소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김기설의 분신은 방승으로 5월 8일에 알게 되었고, 홍성은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아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11시30분-12시 사이 세브란스 영안실로 갔더니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다. 들어갈 수 없으니 연세대학교로 가 보아라"라고 말해서 연세대학교로 가서 12시 30분-1시에 홍성은을 발견했다. 만났을 당

11) 총자료집 I 책 89쪽 참조.

시 본인을 보자마자 홍성은 울기 시작했고 어떻게 된 거야, 분실했어, 서강대학교에서라는 말 정도를 주고 받았으며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말을 많이 물어볼 수 없었다.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 "그 전날 김문정이 전화해서 너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던데 이 일 때문이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 날 들은 말에 의하면 "전날(5/7) 만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어디 떠난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고 내가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왜 붙잡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도망치듯이 가서 붙잡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 5월 8일 6시 조금 넘어 김기설씨가 전화를 해서 "이대 쪽에 있다"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그후 학원의 수업 때문에 2시 정도에 학원으로 돌아와 수업을 했고 수업을 마친 후 홍성은 이 걱정되어 학원에서 연세대로 갔고, 같이 있었으며 다소 진정이 된 것 같아 집에 왔다. 그날 강기훈은 보지 못했다.

5월 8일 이후에 연세대에 홍성을을 보러 가서 만났는데 언제인가 시간 기억은 없다.

5월 13일에 저녁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했고 경황이 없어 끊었다가, 전화를 다시 했더니 홍성은 어머니께서 집에 없다, 검찰청으로 갔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홍성은과는 만나지 못했고, 전화통화도 못했다.

1. (그전에도, 강기훈 선배와는 잘 만나지 못했고) 김기설씨 분신 이후로 전화통화만 했다.

1991. 5. 16

이영미

◎ 91년 5월 17일 ◎

☐자료 가-1-56 (수사기록 409~42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698-2012)

이화삼 23110-5370 1991. 5. 17.
수 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 조 김사 윤 석 만
제 목 필적감정의뢰회보

1. 강력 23110-012296 (1991. 5. 15)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감정서 1부.
사 진 9매.
증거물 증1, 2호 2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 23110-5370 (698-2012) 1991. 5. 17.

수 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 조 김사 윤 석 만
제 목 필적감정의뢰회보

1. 강력 23110-012296 (1991. 5. 15)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감정서 1부.
사 진 9 매.
증거물 증 1, 2호 2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409

19 91 년 5 월 17 일

감 정 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 화 학 과

문 서 감 정 실

의뢰관서명 : 서울지방검찰청

410

감 정 서

이화삼 23110호 (대 강력23110-012296호 1991년 5월 15일)

의뢰관서명 :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물: 가. 1, 수사기록 중의 전술서 2매.
 나. 2, 김기설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1매.
 다. 3, 김기설명의 유서 (당초보관문서증) 2매.

2. 감정사항: (1), 수사기록중의 전술서 필적과 (2), 김기설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3),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과 각각 이동여부.

3. 감정방법: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配字)의 형태, 필세(筆勢), 필순(筆順)에 의한 운필(運筆)순서, 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운필(運筆)상태를 검사하고 기필(起筆)부분과 종필(終筆)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구성, 숙련과 미숙련 차이,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특징, 개인와 함께 습성등을 주시 검사 하였음.

4. 감정조건 :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정밀감사에서 (1) 수사기록중의 진술서 필적은 기재 위치와 상황에 따른 일부변화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있는 특징이 관찰되며, (2) 김기설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은 상당부분에는 안정성있게 기재하였다가 하단부분에는 속필로 기재하는 변화점이 있으나, 일관성있는 특징이 관찰되고, (3)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은 속필로 기재되어 있는 필적으로서, 각 필적은 기재연도와 필기 구동에 의한 부분적인 변화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기준으로 각 필적을 대조한바, 첨부된 사진제 1-9호의 주선표시와 같이 필의구성과 배자의 형태, 기필부분과 종필형태, 자음과모음의 구성, 접필상태, 필획간에 연결되는 위치와 간격, 운필방향 문장끝에서 점을 찍는 습성등에서 상호 상사점이 관찰되고, 특정필획의 상락 형태와 필획의 침범부분, 어력종류의 자음을 두종류로 기재하는 기재습성등 개인고유의 잠재습성등에서 특징적인 상사점이 다수 관찰되며, 기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개인간의 변화상태 이외에 특이한 차이점은 관찰되지 아니함.

첨 부 사 진 9 매. 참 조 확대첨부된 사진은 고대첨부하여 임의로 선정하지

5. 감정결과 : 이상의 감정조건과 같이 (1) 수사기록중 진술서 필적과 (2) 김기설의 친구로부터 제출받은 필적 및 (3) 김기설명의 유서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 됨.

19 91 년 5 월 17 일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소

감 정 인 김 경

412

(사건제 1 호)

김기설명의
사상감정한다
사상감정한다

- 상: 수사기록중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 중: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412

(사진제 2호)

진상정황의

내영혼이여

서로애이함

상: 수사기록중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 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3호)

그중의내화

대후의이서

우리에게

상: 수사기록중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4호)

위키 사이트
 위키로 온다
 위키사이트

상: 수사기록증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5호)

모함
 모지 못했지

상: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 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제 6 호)

수사기록증

의 27호 진술서

시점의 일치

상: 수사기록증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 문서입니다

418

(사진 제 7 호)

화려한색이 진행

화선의 일치

상: 수사기록증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 친구가 제출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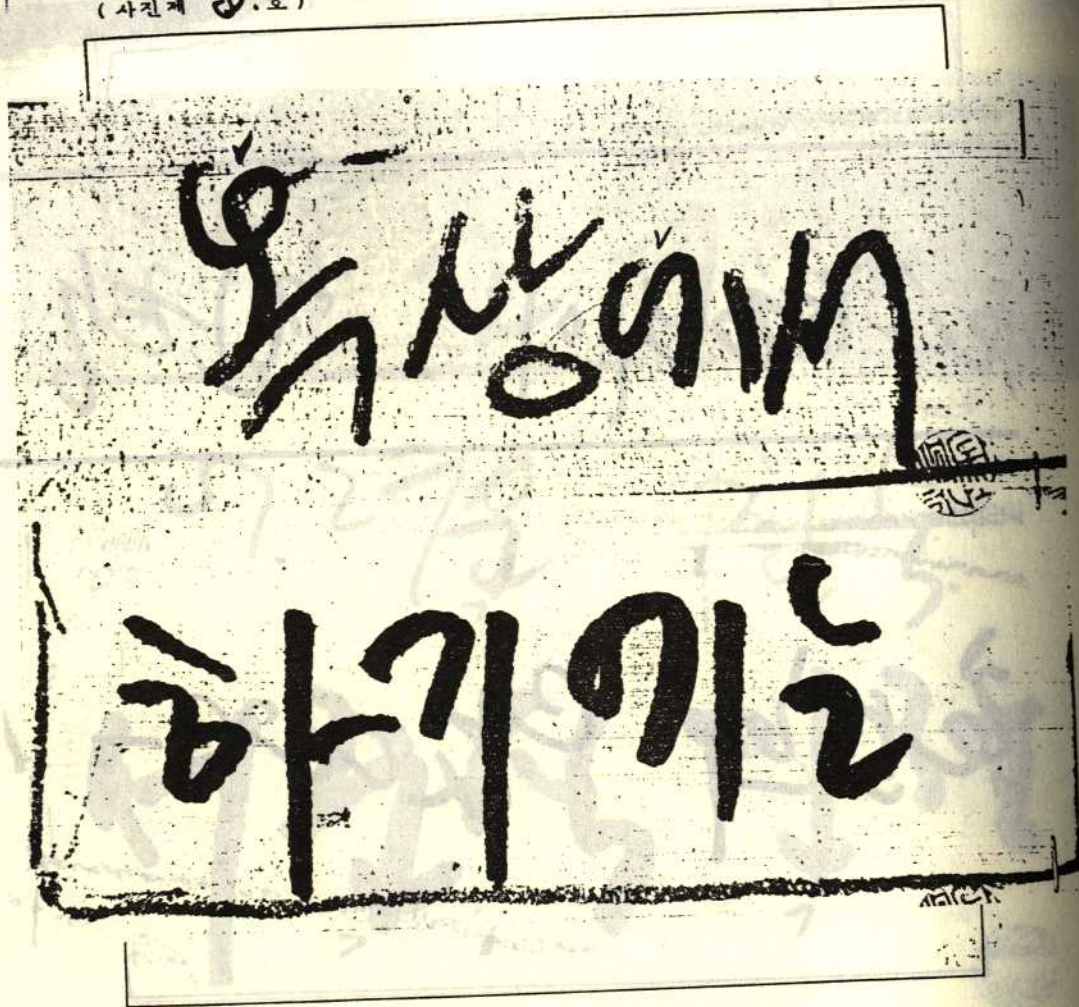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 문서입니다

419

(사진제 9.호)



상: 수사기록중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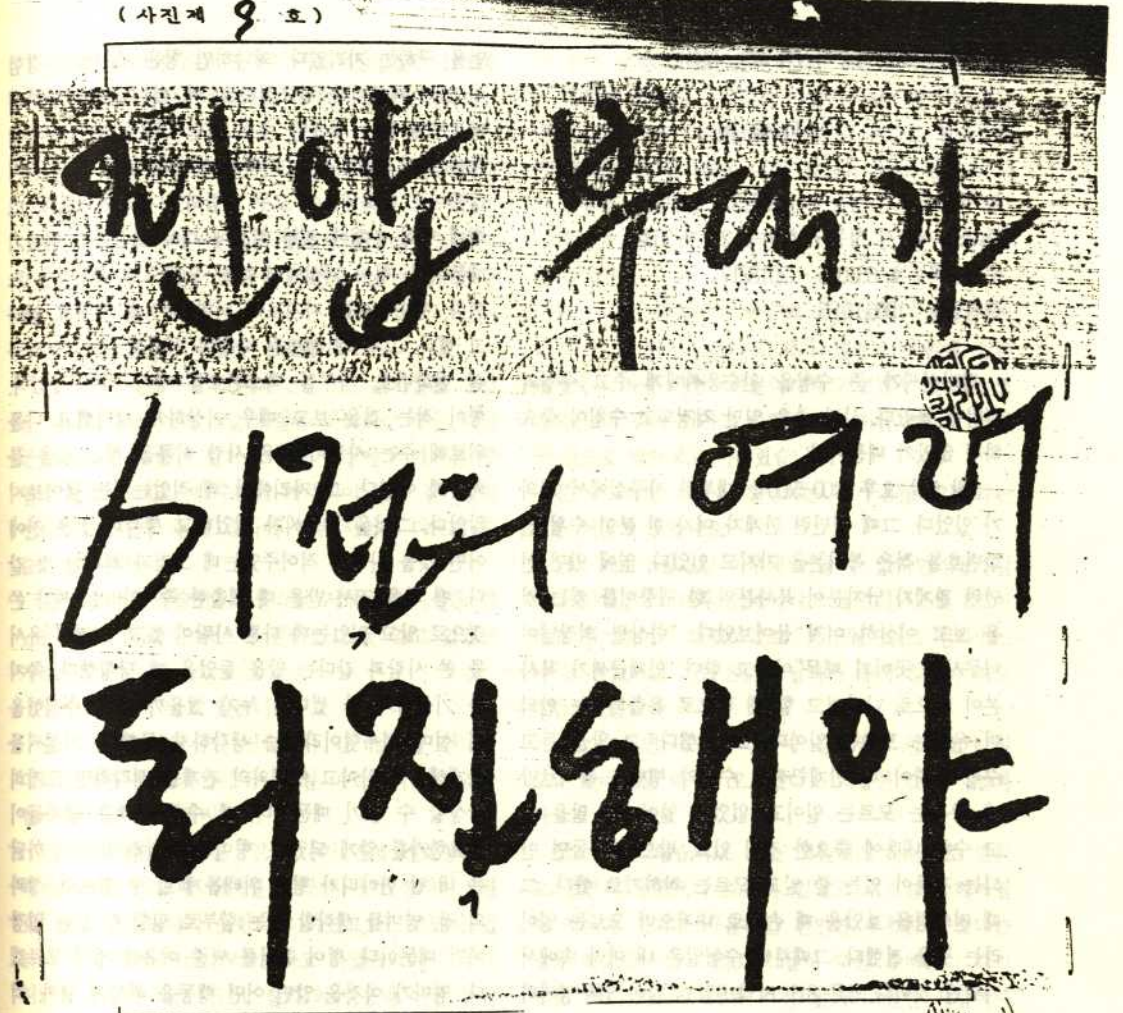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합니다

(사진제 9 호)



상: 수사기록중 진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중: 김기설 친구가 제삼인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명의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朱線표시는 각 증거물 필적과 동일특징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 가-1-57 (수사기록 422~424)

자술서

본적 서울시
주소 서울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66.10.25

김기설씨가 준 수첩을 원순용씨에게 주고 수첩의 행방을 물었다. 사람 죽은 일만 걱정되고 수첩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8일 오후 4:00-5:00쯤 대책위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다. 그때 전민련 관계자 여자 한 분이 수첩 전화번호를 적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 있던 전민련 관계자 남자가 복사본의 한 귀퉁이를 찢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다. "한상렬 의장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재근씨가 복사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밖으로 유출되서는 안되며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수첩 생각이 나 인재근씨께 수첩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없었던 일이라는 말을 듣고 수첩 내용에 중요한 것이 있고, 밖으로 나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그때 진수형을 보았을 때 손으로 내저으며 모르는 일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때부터 수첩일은 내 머리 속에서 지워진 것이다. 5월 8일 저녁 9일 검찰이 임무영씨와 나를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9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다렸다. 김법렬 선생님은 잠깐 뵈었는데 너가 왜 나서게 되었느냐, 전민련이 일을 잘못된 것 같으며 꾸짖으셨다. 이 말을 듣고 검찰 조사가 걱정이 되어 대책위 사무실에서 진수형, 이정과 상의하였다. 당연히 기설씨 만난 경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영미 이야기는 때는 게 좋겠고, 수첩이야기도 안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5월 10일 학교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훈이형을 찾았다. 오후 3시쯤 전민련 사무실로 가 형을 만나고 옷을 갈아 입었다. 오후 3:00쯤 사무실 건너편 봉주르카페에 들어갔다. 거기서 대화내용은 검찰 조사에 대한 조

언을 구하는 자리였다. 왜냐하면 형은 조사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말조심하고, 예, 아니오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묻는 것에만 주로 그런 내용이였다. 수첩에 관해 형이 물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아마 직접 묻지 않았어도 대화내용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때에 형이 수첩에 관한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형이 기설씨에 대한 느낌으로 배심감을 느꼈다. 원순용씨는 자기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후 내 전민련 수첩에 김기설, 전민련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팩스번호를 형이 적어 주었다. 형이 적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죽은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을 볼 수 없게 여겼다. 그 자리에서 왜 적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을 기설씨가 적었다고 생각한 것은 전이 어떤 것을 나에게 적어주었는데 그것과 착각한 것 같다. 맨 처음 조사 받을 때 제출한 쪽지가 기설씨가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썼고, 그것이 유서를 쓴 사람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다. 쪽지를 기설씨가 안 썼다면 누가 썼을까 하고 추적했을 때 설마 현우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기설씨를 소개해준 사람이고 영미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수첩에 적은 글자들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형이라고 말하지 못한 까닭은 내 말 한마디가 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형과의 정, 영미를 생각할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형이 유서를 써준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영미가 이것을 알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

1991. 5. 17.
홍성은

☐자료 가-1-58 (수사기록 425~441)

진술조서 (제 2 회)

주거 서울시
성명 홍성은

사건에 관하여 1991. 5. 17. 서울지방검찰청 1104호에서 임의로 전화에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 진술인이 홍성은이고 전화진술은 전부 사실인가요.

답 : 네, 제가 지난번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조금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

답 : 또 다른 부분은 제가 5월 7일 김기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5월 8일 자살을 하리라는 것을 미리 물었다고 한 부분과 김기설이 죽기 전에 저에게는 수첩의 행방 그리고 제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김기설의 전화번호의 필적 등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은 5월 7일 저녁에 김기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죽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러면 5월 7일 진술인이 김기설이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과 김기설이 5월 8일 자살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김기설이와 5월 7일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기설은 꼭 마나야 한다며 5월 8일 이후에는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고민이 있는데 만나면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진술한 대로 "5. 4 집회"의 반응과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끌 방법을 물었고 또 분신자살에 대하여 제 의견을 물었으며 제가 자살은 패배주의나 좌절에 빠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다고 말하자 김기설은 꼭 그럴까 패배가 아니고 자기의지로 분신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고 하기에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에 저는 김기설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만류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 말을 듣고 김기설의 자살을 만류하려 노력하였는가요.

답 : 저는 이성애 호소하기 보다는 감정에 호소하

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눈물로 붙잡으며 만류하였으나 김기설은 이미 결심이 되어 있었고 제가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만류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말인가요.

답 : 저는 계속하여 만류해 보았는데 김기설은 저를 자꾸 보내려고 하기에 제가 붙잡고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나와 아현지하철역까지 거닐면서 말했고 또 한시간 더 같이 있자고 하였는데도 저를 전철역 개찰구 안으로 밀어넣고 가버렸습니다.

문 : 그러면 자살을 결행하는 때가 5월 8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답 : 제가 5월 8일 이후에 만날 수 없다면 5월 8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 언제냐고 물었더니 5월 8일이라고 김기설이가 대답하였고 "왜 5월 8일로 정하였느냐"고 물었더니 "5월 8일은 날씨가 좋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지난번 진술에 김문정과 장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울면서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김기설이 헤어질 때 저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전민련 수첩을 주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후배들이 김기설을 찾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친한 사람이나 또는 설득할 만한 어른이 누구냐고 묻기에 서준식씨와 진관 스팀 이야기를 많이 하니 그분들이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로부터 그의 수첩을 넘겨받았으면서 왜 그와 같은 사실을 지난번 조사 때 말하지 않고 감추었는가요.

답 : 제가 김기설로부터 받은 수첩을 김기설이 죽은 후 5월 8일 12시경 연대 학생회관에서 전민련 사람인 원순용에게 주었는데 그 후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때 김기설의 수첩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예 수첩을 받은 사실부터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로부터 받은 수첩을 원순용에게 넘겨준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제가 학생회관 3층에 올라가자 저의 친구 이영미와 대학선배 김진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고 복잡하여 1층 로비로 내려갔는데 그때 김진수씨는 전민련 소속인 원순용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내려왔고 이영미는 제가 그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저에게 "수첩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기에 제가 쇼핑백 속에서 꺼내 주자 원순용이가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며 달라고 하였고 저는 수첩의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펴보고 김기설씨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알려주고 그 수첩을 원순용이가 가져갔습니다.

문 : 김기설의 수첩을 넘겨받았을 때 김기설은 그것을 왜 진술인에게 준다고 하던가요.

답 : 자기는 죽으러 가니까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와 가족에게 연락하여 달라며 녹색 하이테크펜으로 아버지와 가족들 전화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춘 이유를 말해 보시오.

답 : 위와 같이 수첩을 원순용씨에게 준 후 그날 오후 4-5시쯤 대책위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전민련관계자 여자 한 사람이 그 수첩의 전화번호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전민련 소속 남자 한 사람이 한쪽 귀퉁이를 찢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더니 한상렬의장님 머무신 곳(비밀아지트를 뜻함)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재근씨가 복사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안된다고 하기에 그때서야 김기설씨가 준 수첩의 해방을 인재근씨에게 물었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기에 그 수첩 속에 중요한 것이 있고 밖으로 나들면 안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진수형을 쳐다보니 손을 내저으며 모르는 체 하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진수선배와 강기훈선배도 저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말할 필요가 없다며 수첩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1차 조사를 받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 진술인에게 김진수가 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수첩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요.

답 : 5월 8일 저녁 그런 일이 있을 후 9일에 단대 민주동문회장 김범철 선생을 뵈게 되었는데 저에게 "네가 왜 나서게 되었느냐" "전민련이 일을 잘못된 것 같다"며 꾸짖으시기에 검찰조사가 걱정이 되므로 대책위에서 김진수와 상의하였더니 진수씨가 "영미 이야기는 빼는 것 좋고 수첩 이야기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에게 강기훈이 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수첩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한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5월 10일 오후 3시경쯤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 건너편 봉주르 카페에서 기훈이형이 저에게 검찰조사를 받을 때 말조심하고 묻는 것에만 예, 아니오를 간단히 대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속에 수첩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였고 영미에 대하여는 제가 먼저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위 카페에서 강기훈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더 말하여 보시오.

답 : 강기훈은 저에게 김기설을 소개하여 준 선배인데 그 사람이 죽고나서 보니 자기의 학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강기훈도 그런 사실을 물렸는지 "배신감을 느꼈다" "원순용씨는 더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저에게 "좋은 추억만 갖고 빨리 잊어버려라"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소지하고 있는 진술인 소유 전민련 수첩에 기재된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누가 기재한 것인가요.

답 : 이때 검사는 증제 11-1호¹²⁾ 전민련 수첩을 제시하고 해당부분을 열람케 한 바,

답 : 강기훈씨가 써주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써주었는가요.

12) 총자료집 I책 107쪽 참조. '증제11-1'는 5월 20일 압수한 '김기설 수첩'. 홍성은 수첩은 '증제번호 7-1호'이다.

답 : 5월 10일 오후 3시쯤 위 봉주르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 수첩에 자기의 글씨로 써주었습니다.

문 : 그러면 강기훈이 진술인과 사귀던 김기설이가 죽은 마당에 진술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적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강기훈은 평소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별 의심스러운 생각은 없고 단지 불쾌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굳이 묻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문 : 그 당시 진술인은 김기설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고 바로 강기훈의 글씨였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마치 김기설이가 생전에 진술인의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 놓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그 당시 저는 김기설의 유서가 그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저의 수첩 위에 이미 죽은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는 강기훈의 속뜻을 알 수가 없었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검사는 제 1-6호, 5-1호의 김기설의 유서,¹³⁾ 업무일지,¹⁴⁾ 강기훈의 필적 등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문 : 지금 보여준 필적 등 모두 강기훈의 필적으로 생각하는지요.

답 : 예, 모두 같은 글씨로 보이며 저의 수첩에 쓰여 있는 필적과 같아 보입니다.

문 : 진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검찰에서 보관중인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김기설의 필적과 김기설이 작성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의 필적을 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본 일이 있습니다.

문 : 그 필적들은 지금 보여준 유서나 강기훈의 필적들과 같은 사람의 글씨로 보이는가요.

답 : 유서와 위 두가지 필적은 다른 사람의 글씨로 보입니다.

문 : 진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진술인의 수첩에 적힌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그 전화번호는 강기훈이

써주었는데도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거짓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기훈이형의 글씨라고 말하였다가는 기훈이형을 위태롭게 할까 걱정이 되고 기훈이형이나 그 애인인 저의 친구 영미와의 정을 생각하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니 유서의 필적이 기훈이형이 쓴 것이 틀림없고 더이상 제가 감추어도 소용이 없겠기에 사실대로 제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쓴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 : 이제 그 글씨가 김기설이 아니고 강기훈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니까 다시 물졌는데 그렇다면 진술인은 5월 10일 오후 봉주르카페에서 강기훈이가 진술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썼을 때부터 김기설의 유서는 김기설의 자필이 아니고 강기훈이가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그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 : 강기훈이가 진술인의 수첩 뒤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줄 때 앞으로 필적조사를 받게 되면 이 글씨가 김기설의 자필이라고 부각을 하지 않던가요.

답 : 부각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왜 1차 조사시 부각도 받지 않았는데 부각을 받은 것처럼 김기설의 글씨라고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는가요.

답 : 부각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1차 조사를 받을 때 그때서야 강기훈이가 죽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 수첩에 적은 뜻을 알아차리고 김기설의 글씨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강기훈이가 유서를 대신 쓴것이 탄로나서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강기훈이 그런 부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술인에게 혹시 김기설의 편지나 필적이 진술인에게 남아 있는나고 묻지 않던가요.

답 : 그런 질문은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1차 조사시 김기설로부터 받았다고 제출한 메모지의 글씨는 바로 진술인의 수첩에 김기

13) 총자료집 I책 27쪽 참조.

14) 자료집 I책 80쪽 참조.

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준 강기훈의 글씨인데 진술인은 그 당시 마음 속으로는 그 메모지 글씨가 강기훈의 글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저는 같은 글씨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비슷한 글씨로 보였고 제가 제출한 메모지를 김기철로부터 받을 때 자기 글씨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보기에 잘 쓴 글이라고 말하면서 읽어보라고 주었기 때문에 두 글씨가 같은 강기훈의 글씨인지, 혹은 김기철의 글씨와 강기훈의 글씨가 흡사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메모지는 또다른 사람의 글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김기철은 어디서 누가 쓴 메모지를 진술인에게 주었을까요.

답 : 이제와 생각하니 김기철이가 자기 글씨라거나 자기가 썼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강기훈이가 쓴 것을 읽어보고 근사하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준 것으로 짐작되기는 합니다.

문 : 진술인은 5월 7일 밤 김기철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강기훈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시각과 경위를 말하여보시오.

답 : 5월 7일 밤 11시반쯤 제가 집에 돌아와서 김기철이 준 수첩을 뒤적이다보니 가명이 이현우(강기훈의 가명)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에 전화를 하였더니 강기훈이 제가 "기훈이형 왜 사무실에 안 나왔느냐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기에 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속으로 혹시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기훈이형은 김기철씨가 내일 죽으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5월 5일에 술을 과음하고 주정을 부린 일을 사과한 것인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도 술주정 때문인가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한 뒤 "김기철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달라"며 김기철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말해주었습니다.

문 : 그후 전화통에다가 다른 말 특히 기철이가 죽은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문 : 그러면 강기훈이가 미안하다고 반복하는 것은

바로 강기훈이가 김기철의 5월 8일 분신여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이상하게만 생각하였는데 5월 8일 김기철이가 죽은 후 연대에서 강기훈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기훈이형에게 "왜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강기훈은 5월 5일 술을 많이 먹고 길바닥에 주저 앉았던 것에 대한 사과라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철의 장례가 끝난 5월 12일밤 강기훈, 김진수, 이영미 등과 혹시 어디에 가서 한 잔 마시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를 말하여 보시오.

답 : 5월 12일 장례가 끝난 후 오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종로 5가에 있는 전민련 사무실 근처 도이취 호프집에서 생맥주 2-3잔씩 먹었습니다.

문 : 그곳에서의 대화내용 중 특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답 : 주로 저를 위로하는 내용이었고 장례 치륵 이야기들을 하다가 김진수형이 자기가 박래전 분신사건 때나 단국대학교 최덕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김기철 분신사건 장례에서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라며 만약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이나 원진래이온 근로자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김기철을 성실성이나 투쟁성향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 되고 저를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 내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기훈은 이미 옆질러진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 김진수나 강기훈의 이와 같은 말은 진술인을 매스컴에 노출시켜 검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자인 저의 장례를 걱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괜찮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철이 죽기 전인 5월 5일에도 위 강기훈, 김진수, 이영미 등과 만나 술을 마신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와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5월 5일 오후 2시경에 영미집에 김진수, 강기훈, 저 다 모여서 놀다가 저녁 7시쯤 건대 정문 앞에 있는 반달집에서 막걸리를 먹고 11시쯤 영미는 먼저 가고 나머지 사람은 술집을 두군데 더 들렀다가 저는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훈형이 술에 취해서 술을 더 달라고 하고 집에 갈 때도 땅바닥에 주저앉고 하였습니다.

문 : 그날 특별히 기억나는 대화나 사건이 없었는가요.

답 : 지금 생각해보니 반달집에서 막걸리를 마실 때 저와 김기철을 소개하여준 기훈형이 저에게 기철씨 잘 있냐고 안부를 물었고 밤 11시쯤 호프집을 둘러 12시쯤 건대역 백제예식장 근처 술집에서 소주를 먹을 때는 기훈형이 또 저에게 "기철씨가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 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문 : 그로부터 3일 후 김기철씨가 사망하였는데 좀 전에 진술인은 5월 10일 오후 3시반쯤 봉주르카페에서 김기철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기훈이라 말하더라 하였습니다.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때 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던가요.

답 :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나 김기철씨가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또 죽기 전 일주일 전쯤부터 김기철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문 : 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던가요.

답 :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문 : 그러면 5월 5일에는 안부를 묻고 좋은 사람이라며 잘 사귀어보라고 말하던 강기훈이가 5월 10일날 말할 때는 죽기 전 일주일 전부터 사이가 나빴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요.

답 : 글썽요 이상하긴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참고로 더 할 말이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간인케 하다.

진술자 홍성은

1991. 5. 1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1-59 (수사기록 442~452)

진술서

성명 이영미

연령 23세 (1967. 6. 5.생)

주민등록번호 (

본적 서울시

주거 서울시

자택전화

직장번호

직업 강사

직장 양천구 소재 속셈학원

위의 사람은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1. 5월 8일

학원으로 김진수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전민련 사람이 분신했는데 아느냐?"라고 물었고 "안다. 홍성은이가 자주 만나던 사람이다" 내가 연대의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있으니(홍성은에게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그쪽으로 갈거더라는 이야기를 하니, 자신(김진수)도 아침 먹고 갈거니, 그쪽에서 보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안실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지를 받았고, 학생회관에 상황실이 있으니,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연대로 가던 중, 김진수 선배를 만나 학생회관에 도착하여 1층에서 김진수 선배가 아는 사람인 듯한(원순용으로 생각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확한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고, 집과 연락도 안된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김진수 선배와 나는 3층으로 올라가서 홍성은의 행방을 알아보던 중 홍성을을 발견, 우는 홍성을을 달래기 위해 우선 1층으로 내려왔다. 제가 김기철씨가 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옴. 홍성과과 함께 울고 있는데, 지금

전에 봤던 원순용이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홍성은에게 집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홍성은이 쇼핑백에서 김기철의 수첩으로 보이는 까만색의 수첩을 아버지라는 이름이 쓰여진 쪽을 펴서 건내주었다. 그런데 제가 김기철의 수첩을 홍성은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미리 알아서, 전해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수첩 전해주는 것은 그 당시 보았다.

그후 3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던 중 장준호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처음보는 사람들(장준호와 홍성은) 같지 않아 보였으며 알고 있는 듯 했다. 홍성은과 잠시 장준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으로 올라가서는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누구인지는 모른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할 수 있겠느냐 물었고, 심하게 울고 있는 상태라서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후 계속 그 방에 있었다. 관계자(전민련)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기자회견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김진수 선배님이나 나는 홍성은에게 권유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고(앞의 말은 듣지 못했다) 그 소리를 듣자 홍성은이 기자회견장에 가겠다고 하여 진정이 덜 된 것 같으니까 함께 가라고 해서 홍성은 김진수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홍성은이 전날 봤다(이는 분명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것 같다) 아침에 김기철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대쪽에 있다고 대답했다. 열심히 살아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오고가다가 끊어졌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있던 중, 괜찮느냐, 진정이 됐느냐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고, 학원에 가야되지 않느냐고 물어서 가야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김진수 선배님이 남아 있겠다고 가라고 해서, 2시경 학원으로 돌아와 남은 수업을 마치고 다시 연세대로 갔더니(방에 김진수와 홍성은이 없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하러 갔다고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 김진수와 홍성은이 왔고 조금 지나니, 동아일보의 기자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해서 동석(김진수와 본인)하여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와의 면담시 한겨레 기자가 홍성은의 직

장관계에 대해 물었고, 홍성은이 대답하니, 한겨레 기자는 가고 동아일보 기자와 계속 면담을 하고 방으로 돌아오니, 조금 있다가 6:30경 어떤 남자가 이정을 아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 따라오라고 하여 입구쪽으로 갔다. 그전 수업 마치고 오기 전에 이정에게 전화해서 오늘 분신한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안다고 했고(방송으로 들었다고 함) 홍성은이 만나던 사람이므로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나는 수업 후 간다고 했고, 혹시 오지 않겠냐고 물으니 온다고 해서 7:00에 연세대 학생회관 1층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일찍 도착해서 올라왔다고 했다.

8:00경에 대책위쪽 분이 유품(원 종이로 싸여 있는 상자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김사에게 간다고 했고, 부모님을 만나지 않겠냐고 홍성은에게 물어보니 만나겠다고 해서 몇분 관계자와 홍성은, 김진수, 이정과 같이 영안실로 갔다. 가는 길에 관계자들이 ———— 150여러분과 마주쳤는데 그중 한 여자가분이 인제근씨였다(그 여자가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일행중 한 명이 이름을 말해주어 알았다).

빈소에 가서 관계자분이 아버님을 뵙고 올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던 중 아버님은 관계자들과 유품을 든 김진수 선배님과 함께 김사를 만나러 갔고 홍성은과 이정과 서 있는데 매형(김기철의 매형 중 한 분)이 홍성은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여 김기철의 매형과 홍성은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영안실 건물 근처) 이정과 나는 빈소에서 분향을 하고, 빈소 근처에 있던 중 같은 학교 82학번(국문과) 남승호 선배님이 분향하러 오셨고, 매형과 이야기를 마치고 오는 홍성은과 인사를 했다. 그리고 빈소 근처에서 파주의 김기철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등 머물러 있다가 22:00-23:00 연대로(학생회관) 돌아가, 홍성은이 집에 전화해서 자신은 지금 연대에 있다, 아는 사람이 분신했다,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김진수, 이정은 남겠다고 했다. 나는 귀가를 해야 할 것 같아 23:00경 연세대를 나와서 지하철을 탔다.

5. 9.

7:00경 퇴근 후 연세대에 도착해서 학생회관에 갔

15) 복사 불량 판독 불가. 수사기록 447쪽 상단.

더니 홍성은은 혼자만 있었다. 잠시 후 사학과 85학번 한인수라는 친구가 홍성은이 입을 바지를 가지고 왔다.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오늘 어찌할 거냐고 물었더니, 내일 수업도 있고 해서 오늘은 집에 갈 거라고 하는 말 등을 주고 받다가 9:00경 귀가하였다.

5. 10.

홍성은이 저의 직장으로 전화해서(몇시인지는 모르나 오후였음) 오늘 명동성당에서 추모모임이 있다고 해서 홍성은과 7:00경 중앙극장 앞에서 만나(김진수 같이 있었음) 추모모임에 참석 끝날 때까지 있다가(7시 조금 후) 전민련에 계시는 강기훈 선배님께 전화를 해서 종로쪽으로 가 Hof집에서 전화를 하니(10시) 잠시 후 선배가 와서 맥주를 마시다가 12시경 좌석버스를 타고 화양리에 하차 홍성은은 먼저 가고, 김진수, 강기훈과 함께 택시를 타고 구의사거리에서 저는 하차하고 두분은 계속 갑.

5. 11.

파마를 가려고 생각하고 홍성은에게 전화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집에 있겠다고 해서 그럼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하고는 파마를 하고 7:00 전화를 하니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안된다라고 하여 8:00경에 만나기로 하고 화양리의 cafe에서 만나 앞으로 힘들어질 테니(심정적인 면에서) 연락해라. 일을 좀 해라(학원자리 알아보라고 권함),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지 않으시냐? 등의 말을 주고 받다가 김기철이의 학교(대학교 중퇴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성은은 모르는 것 같았고, 안산 캠퍼스라고 알고 있는 듯 했다. 신문 등에 한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니 물렸었다고 했다. 아마도 그렇게(한양대학교 중퇴) 이야기한 것은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때문이었을 것이라 하고 홍성은이 이야기하였다. 건대까지 건다가 11시 이전에 헤어져 집에 왔다.

5. 12.

선배의 결혼식이 있어서(3시경) 늦잠을 자는데 10시경에 전화가 와서(홍성은) 오늘이 장례일이라고 하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진수에게 전화해서

11:30에 홍익서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홍성은에게 전화해 건대지하철역에서 10:50에 만나기로 했으나, 장소를 다르게 알아 만나지 못하고, 신촌으로 갔으나 서점 앞에 아무도 없어 어쩔까 생각하던 중 학교 국문과 84학번 방수연을 만나 서강대에 갔더니, 김진수와 홍성은이 있어 같이 있다가 방수연은 약속이 있다고 가고 김진수, 홍성은, 나 등이 장례행렬에 합류 장지로 가던 중 들린 전민련 사무실에서 강기훈 선배 탐승하여 장지에 가 안장하고(19:00경) 서울 종로 5가에서 하차하여 Hof집에 들어가(10시경) 오늘 일에 대한 이야기 성은이 이야기 등을 하다 좌석버스 타고 귀가하던 중(강기훈과 김진수는 좌석버스를 타지 않음) 성은 하차하고(화양리) 저도 구의사거리에서 내려 귀가하였습니다.

5. 13.

강기훈, 이정, 김진수, 방수연 등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생각나 홍성은에게 전화했으나 홍성은이 받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만 하고 끊어 잠시 후 다시 전화하니, 어머니께서 홍성은 검찰청에 가고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24시경 헤어져 집에 왔다.

5. 14.

학교 수업 후 후배 박수회를 만나 소설책 빌려주고 헤어져 9시 조금 넘어 귀가.

5. 15.

강기훈 선배 전화해서 성은에게서 연락 있었느냐고 물었고, 나는 통화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8시 30분경 귀가했다.

1991년 5월 17일

이영미

☐자료 가-1-60 (수사기록 453-1~453-2)

서울지방검찰청

강력23110-012577 1991. 5. 17.

수 신 : 법무부장관

참 조 : 입국심사과장

발 신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출국금지 요청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및 등록번호 내사중
요청기관 및 실무부서 강력부
출국금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강기훈(가명 이현우, 김명훈)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S

출국금지 요청기간 1991. 5. 17. -
1991. 8. 31.

출국금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사문서위조사건의 혐의자임.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577

시행일자 1991. 5.

보조기관

차장검사 전 결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임 철

기안책임자 검찰주사 안재호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입국심사과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 목 출국금지요청

송신사항

송신부의송신연락 1420

송 신 일 시 5. 18 11:30

총 송 신 매 수 1

송 신 자 번 호 1

수 신 자 번 호

수 신 자

23110-012577 1991. 5. 17.

수 신 : 법무부장관 발 신 : 서울지방검찰청

참 조 : 입국심사과장

제 목 : 출국금지 요청

출입국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및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제 4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및 등록번호	내사중	요청기관 및 실무부서	강력부	국과
출대인	성명 강기훈 (가명 이현우, 김명훈)	성별	남·여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검사	직위	직·임	(있는경우 기재)	
지자함	주소	번호		
출국금지 요청기간	1991. 5. 17. - 1991. 8. 31.			
출국금지 사유	사문서위조사건의 혐의자임. (구체적으로 기재)			
청부	소명자료	요	부	
심결	출국금지 여부 결정	가	부	
경	출국금지기간			
사판	이유			
	심사결정자 (직·책)			

심사결정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3236-09911 일 88.12.1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2mm)

☐자료 나-0-116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신청사건기록

사건번호 91초 1844 (91형제 46779)
담 임 8단독
사건명 <제1회 공판1회전>
증인신문
신청인 서울지검 검사 송명석
변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강기훈

제 호 (91형제 46779호) 1991. 5. 17.
발 신 서울지방 검찰청
검 사 송 명 석
수 신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목 증인 등 신문 청구·신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제2항에 의한)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신문할자
성명 홍성은(洪成銀)
주민등록번호
주거 서울 S
직업 여고 강사

청구하는 사유
검사에게 임의의 진술을 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문할 사항
별지와 같음.

16) 재판기록이나 일차상 연관성을 고려, 자료번호를 '나'로 하여 첨부함.

서울지방법원
형사신청사건기록

사건번호	91초 1844 (91형제 46779)	담 임	8단독 주심
사건명	<제1회 공판1회전> 증인신문		
신청인	서울지검 검사 송명석		
변호인	송명석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강기훈		

제 호 (91형제 46779호)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발신 서울지방 검찰청

제 목 증인 등 신문 청구·신청 (형사소송법 제 221조의 2 제 2항에 의한)

피의자 강기훈 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신문할자	성명	홍성은(洪成銀)	주민등록번호
주거	서울 S		
직업	여고 강사		

청구하는 사유
검사에게 임의의 진술을 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문할 사항
별지와 같음.

1991. 5. 17

증인 홍성은 신문 사항

1. 증인은 1991. 5. 8.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 투신하여 사망한 김기설을 아는가요?
2. 증인이 위 김기설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시요?
3. 증인을 김기설에게 소개해 준 강기훈(일명 이현우), 이영미는 증인과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요?
4. 증인이 김기설을 마지막 만난 일시, 장소와 대화내용을 말하시요?
5.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그가 사용하던 수첩과 사진을 받은 일시, 장소와 경위를 말하시요?
6. 증인은 장준호, 김문정을 아는가요?
7. 증인이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만난 후, 위 장준호, 김문정과 만난 일시, 장소와 대화내용을 말하시요?
8. 증인은 위 김기설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은 일시, 장소와 통화내용을 진술하시요?
9. 증인이 그후 김기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시요?
10. 증인이 연대 학생회관 3층의 강경대 폭행치사 범국민대책위 사무실에 간 일시, 장소 및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시요?
11.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위 수첩은 어떤 경위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었나요?
12. 증인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김기설의 수첩과 사진을 받은 사실을 감춘 이유를 말하시요?
13. 증인이 당시 범국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를 진술하시요?
14. 증인은 전에 김기설로부터 전민련 수첩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15. 증인이 위 수첩을 강기훈에게 주어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사실이 있는가요?
16. 그 일시, 장소 및 대화내용을 진술하시요?
17. 증인이 김기설의 장례식 후 김진수, 강기훈, 이영미를 만난 일시, 장소와 당시 대화내용을 진술하시요?

영수증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주사 구찬희 귀하

사 건 91로 1844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1. 증인신문기일 소환장 (91. 5. 17. 19:00)

위 서류는 1991. 5. 17.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1991. 5. 17.
영수인 홍성은

☐자료 나-0-2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1 회
사 건 91초 1844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1 회	91 초 1844	제 1 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사 건	강 기 훈	
피 의 자	이 현 승	기 일 1991. 5. 17. 19:00
판 사	구 찬 회	장 소 제 315호 심문실
법원주사		신문에 참여한 사람
		검 사 송 명 석
증 인	홍 성 은	
생년월일	1966. 10. 25.	
직업	학교강사	
주거	서울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거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피의자 강기훈
판사 이현승
법원주사 구찬회
기일 1991. 5. 17. 19:00
장소 제315호 심문실
신문에 참여한 사람 검사 송명석
증인 홍성은
생년월일 1966. 10. 25.
직업 학교강사
주거 서울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거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1. 5. 8.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 투신하여 사망한 김기설을 아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이 위 김기설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시요.
답: 1991. 1. 20.경 성동구 화양리 카페 슈베르트에서 강기훈과 이영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증인을 김기설에게 소개해준 강기훈, 이영미는 증인과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요?
답: 강기훈은 1990. 11.부터 알게 된 학교 선배인데, 일명 이현우라고도 하며, 이영미는 친구인데 1986.에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고, 1990.부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문: 증인이 김기설을 마지막 만난 일시, 장소와 대화내용을 말하시요.

답: 1991. 5. 7. 19:30경 신촌에 있는 복지다방에서 만나 근처에 있는 분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부근의 카페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기설이 저에게 5월 4일 있었던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응이 좋았다고 말하였더니 김기설이 그러면 이 열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논의하자고 하여 제가 그 방법으로는 첫째 유인물이나 집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과 둘째 극한적인 방법으로 분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신은 패배주의자나 좌절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자, 김기설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분신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며, 분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기에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김기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꾸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김기설이 직접적인 말은 안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설이 분신이란 말은 알았으나 그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울면서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먼저 가겠다고 해 22:30경 아현역에서 헤어졌습니다.

문: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그가 사용하던 수첩과 사진을 받은 일시, 장소와 경위를 말하시요.

답: 제가 위와 같이 김기설이 하고 대화하면서 그를 설득할 때 김기설이 저에게 그의 수첩을 주었으며, 사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에는 약속장소와 사람 이름, 전화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첩 뒷부분에 적혀 있는 사람 이름 부분을 저에게 보이고 녹색하이테크 펜으로 그가 죽으면 연락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문: 증인은 장준호, 김문정을 아는가요?
답: 장준호는 김기설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김문정은 저의 대학동기입니다.

문: 증인이 김기설과 마지막으로 만난 후, 위 장준호, 김문정과 만난 일시, 장소와 대화내용을 말하시요.
답: 제가 그날 22:30경 김기설과 헤어져 집에 돌아왔는데 24:00경 김문정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좀 만나자고 하여 00:30경 민중병원 앞으로 나갔더니 김문정이 장준호와 같이 나와 있어서 저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장준호가 저에게 김기설을 만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장준호가 사람들이 수첩하고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00:50경 헤어졌

습니다.

문 : 증인은 위 김기설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은 일시, 장소와 통화내용을 진술하시오.

답 : 1991. 5. 8. 06:30 증인 집에서 김기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이대쪽에 있다고 하면서 수업 잘 받아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고 하여 제가 사람들이 당신이 죽으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였다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 : 증인이 그후 김기설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1991. 5. 8. 12:00경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이영미, 김진수 등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김기설이 사망했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문 : 증인이 연대 학생회관 3층의 강경대 폭행치사 범국민대책위 사무실에 간 일시, 장소 및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시오.

답 : 1991. 5. 8. 12:00경 연세 학생회관 3층 강경대 폭행치사 범국민대책위 사무실에 갔다가 저와 김진수, 이영미, 원순용(전민련 사람)이 1층 로비에 같이 내려왔는데 이영미에게 김기설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 영안실에 있다고 하여 김기설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위 수첩은 어떤 경위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었는가요.

답 : 그때쯤 이영미가 저에게 "너 김기설의 수첩 가지고 있다면서"라고 하길래 제가 수첩을 쇼핑백에서 꺼내 주었더니 원순용이 김기설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가져 갔습니다.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김기설의 수첩을 받은 사실을 감춘 이유를 말하시오.

답 : 위 수첩에는 전민련 의장인 한상열 등 수사기관에서 수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증인이 알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 알려지면 곤란한 전민련 관계자들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밖에 김진수가 5. 9. 오후 1-2시경 대책위 사무실에서 저에게 쓸데 없는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또 수첩이야기 등으로 쓸데 없는 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조언하였으며, 강기훈도 5. 10. 오후 3시경 종로 5가

봉주르카페에서 이영미 등 쓸데 없는 사람이나 쓸데 없는 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수첩이야기는 하지 아니 하였던 것입니다.

문 : 증인이 당시 범국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5. 8. 오후 2-3시경 연대 학생회관 3층 휴게실에서 전민련의 양재원 및 그 주위에 있던 장례대책위 사람들이 권유하였으며, 또 그때 제가 김진수의 얼굴을 쳐다 보았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 : 증인은 전에 김기설로부터 전민련 수첩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91. 3.경 김기설로부터 전민련 수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위 수첩을 강기훈에게 주어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5. 10. 오후 3시 30분경 봉주르카페에서 저와 강기훈이 만났는데 강기훈이 저에게 저의 수첩을 꺼내보라고 해서 꺼냈더니 강기훈이 저의 수첩 뒷부분의 여백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문 : 증인이 김기설의 장례식 후 김진수, 강기훈, 이영미를 만난 일시, 장소와 당시 대화내용을 진술하시오.

답 : 제가 5. 12. 오후 10시 12시 사이에 종로5가 도이치호프에서 김진수, 강기훈, 이영미를 만났는데, 헤어질 무렵 김진수가 저에게 말하기를 여자인 저를 기자회견 인터뷰에 노출시킨 것이 자기의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91. 5. 7.밤 11:30경 증인이 김기설과 헤어진 후 증인의 집에서 이현우(강기훈의 별명)의 집에 전화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제가 그에게 만약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달라면서 김기설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문 : 증인은 본진으로 검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할 때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

선 서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 인 홍 성 은
직 업 학교 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명무인 하였는가요.(수사기록증 증인의 1991. 5. 14.자 자술서,17) 증인의 1991. 5. 14.자 검찰진술조서,18) 증인의 1991. 5. 16.자 자술서,19) 증인의 1991. 5. 17.자 자술서,20) 증인의 1991. 5. 17.자 검찰 2회 진술조서21) 를 제시, 내용을 읽어주다).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무인하고 내용도 맞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김기설의 수첩을 현재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아는가요.

답 : 알지 못합니다.

문 : 김기설로부터 받았던 증인의 수첩은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고 기재 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은 바, 틀림없다고 대답한 후 간인하고 서명날인하다.

진술자 홍 성 은
1991. 5. 17.
법원주사 구 찬 회
판 사 이 현 승

18) 총자료집 I 책 99쪽.
19) 총자료집 I 책 160쪽.
20) 총자료집 I 책 178쪽.
21) 총자료집 I 책 178쪽.

17) 총자료집 I 책 98쪽.

☐자료 가-2-7 (동아, 91년 5월 17일)

「누가 焚身을 배후조종한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누가 버린
 할 수 있었습니까」
 16일 정오경 서울대의대 건물 앞에서 열린 분신자살 운동자 尹龍錫씨(22)의 연설장면.
 尹씨의 유서가 낭독되자 학생 운동자 시종 3천여명의 참석자들은 슬픔과 인제 귀를 기울였다.

「尹龍錫씨(22)는 1967년 6월 5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속셈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이용길(51세), 어머니 문정자(45세), 남동생 이우석(22세), 남동생 이인석(19세)이 있습니다.

1. 본인은 1985. 단국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9. 졸업한 이영미로 현재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속셈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이용길(51세), 어머니 문정자(45세), 남동생 이우석(22세), 남동생 이인석(19세)이 있습니다.

1.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김기설이 1991. 5. 8. 서강대에서 분신 자살한 사실에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알게된 경위를 어떠한가요
 답 : 1991. 1. 초순경 건국대 후문 부근 호프집에서 평소 사귀던 남자 친구 강기훈, 여자친구 홍성운을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강기훈이 김기설에 관해 말을 하면서 홍성운이에게 소개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1. 초순경 종로 2가 다방에서 강기훈, 홍성운, 김기설, 이영미 등이 처음 만났으며, 같은 달 20. 12:0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슈베르트 카페에서 2차로 4명이 만났습니다.

문 : 강기훈이 김기설을 어떻게 소개하고 김기설은 자신을 누구하고 말하던가요
 답 : 김기설은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중퇴한 사람으로 현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

「말바탕인생을 전전해 왔다.
 그러던 그가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재야 청년단체회원인 형 龍錫씨(28)를 통해서였다. 尹씨는 분신하루 전인 지난 9일 형에게 「학살들의 분신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수사하겠다고 정부의 태도에 분개하며 大田집을 나섰다.尹씨는 「尹龍錫씨(22)는 1967년 6월 5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속셈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이용길(51세), 어머니 문정자(45세), 남동생 이우석(22세), 남동생 이인석(19세)이 있습니다.

1.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김기설이 1991. 5. 8. 서강대에서 분신 자살한 사실에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알게된 경위를 어떠한가요
 답 : 1991. 1. 초순경 건국대 후문 부근 호프집에서 평소 사귀던 남자 친구 강기훈, 여자친구 홍성운을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강기훈이 김기설에 관해 말을 하면서 홍성운이에게 소개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1. 초순경 종로 2가 다방에서 강기훈, 홍성운, 김기설, 이영미 등이 처음 만났으며, 같은 달 20. 12:0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슈베르트 카페에서 2차로 4명이 만났습니다.

문 : 강기훈이 김기설을 어떻게 소개하고 김기설은 자신을 누구하고 말하던가요
 답 : 김기설은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중퇴한 사람으로 현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

「누가 焚身을 배후조종한단 말입니까」

「말바탕인생을 전전해 왔다.
 그러던 그가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재야 청년단체회원인 형 龍錫씨(28)를 통해서였다. 尹씨는 분신하루 전인 지난 9일 형에게 「학살들의 분신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수사하겠다고 정부의 태도에 분개하며 大田집을 나섰다.尹씨는 「尹龍錫씨(22)는 1967년 6월 5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속셈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이용길(51세), 어머니 문정자(45세), 남동생 이우석(22세), 남동생 이인석(19세)이 있습니다.

1.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김기설이 1991. 5. 8. 서강대에서 분신 자살한 사실에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알게된 경위를 어떠한가요
 답 : 1991. 1. 초순경 건국대 후문 부근 호프집에서 평소 사귀던 남자 친구 강기훈, 여자친구 홍성운을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강기훈이 김기설에 관해 말을 하면서 홍성운이에게 소개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1. 초순경 종로 2가 다방에서 강기훈, 홍성운, 김기설, 이영미 등이 처음 만났으며, 같은 달 20. 12:0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슈베르트 카페에서 2차로 4명이 만났습니다.

문 : 강기훈이 김기설을 어떻게 소개하고 김기설은 자신을 누구하고 말하던가요
 답 : 김기설은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중퇴한 사람으로 현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

「말바탕인생을 전전해 왔다.
 그러던 그가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재야 청년단체회원인 형 龍錫씨(28)를 통해서였다. 尹씨는 분신하루 전인 지난 9일 형에게 「학살들의 분신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수사하겠다고 정부의 태도에 분개하며 大田집을 나섰다.尹씨는 「尹龍錫씨(22)는 1967년 6월 5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속셈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이용길(51세), 어머니 문정자(45세), 남동생 이우석(22세), 남동생 이인석(19세)이 있습니다.

1.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김기설이 1991. 5. 8. 서강대에서 분신 자살한 사실에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알게된 경위를 어떠한가요
 답 : 1991. 1. 초순경 건국대 후문 부근 호프집에서 평소 사귀던 남자 친구 강기훈, 여자친구 홍성운을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강기훈이 김기설에 관해 말을 하면서 홍성운이에게 소개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1. 초순경 종로 2가 다방에서 강기훈, 홍성운, 김기설, 이영미 등이 처음 만났으며, 같은 달 20. 12:0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슈베르트 카페에서 2차로 4명이 만났습니다.

문 : 강기훈이 김기설을 어떻게 소개하고 김기설은 자신을 누구하고 말하던가요
 답 : 김기설은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중퇴한 사람으로 현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

진술조서(이영미) 193

◎ 91년 5월 18일 ◎

☐자료 가-1-61 (수사기록 454~471)

진술조서

- ①성 명 이영미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거 서울
- ④본 적 서울
- ⑤직 업 강사(서부속셈학원)
- ⑥연 령 23세 1967. 6. 5.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1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본인은 1985. 단국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9. 졸업한 이영미로 현재 서울 양천구 소재 서부속셈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이용길(51세), 어머니 문정자(45세), 남동생 이우석(22세), 남동생 이인석(19세)이 있습니다.

1.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김기설이 1991. 5. 8. 서강대에서 분신 자살한 사실에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을 알게된 경위를 어떠한가요
 답 : 1991. 1. 초순경 건국대 후문 부근 호프집에서 평소 사귀던 남자 친구 강기훈, 여자친구 홍성운을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강기훈이 김기설에 관해 말을 하면서 홍성운이에게 소개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해 1. 초순경 종로 2가 다방에서 강기훈, 홍성운, 김기설, 이영미 등이 처음 만났으며, 같은 달 20. 12:00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슈베르트 카페에서 2차로 4명이 만났습니다.

문 : 강기훈이 김기설을 어떻게 소개하고 김기설은 자신을 누구하고 말하던가요

답 : 김기설은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중퇴한 사람으로 현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

다고 하였습니다.
 문 : 강기훈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1985. 단국대 화학과에 입학하여 같은 과 선배로서 강기훈을 알게 되었는데 1990. 1.경부터 연인 사이로 되었으며, 강기훈은 재학시 학생운동을 하였고, 전민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홍성운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단국대학교 입학하여 알게 되었으며, 1990. 말경 같은 동네로 이사하여 와서 서로 취직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진 친구사이입니다.

문 : 김기설이 분신한 것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91. 5. 8. 08:00경 학원 출근길에 방송을 통하여 김기설 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김기설의 분신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사전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의 분신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요

답 : 5. 8. 09:30경 학원에 도착하여 홍성운은 집에 전화를 하니 홍성운이 없어 강기훈 집으로 전화를 하여 강기훈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문 : 강기훈과 통화한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 강기훈에게 알고 있다고 물었더니 뭐냐고 반문하길래 김기설의 분신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며 강기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나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문 : 그외에 김기설의 분신과 관련하여 의미를 이야기한다든지 사체가 보관된 장소에 같이 가자는 등의 말이 없었는가요

답 : 그러한 말은 없었으며 강기훈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기훈은 전철역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방송을 들었다고 하고 그의 별다른 내용 없이 통화가 끝났습니다.

문 : 평소 잘 알고 있는 김기설이가 분신자살하고 그 유해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면 함께 찾아가 보자든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일상적인 관례에 비추어서 이상하지 않은가요

답 : 서로 김기설의 분신에 대하여 알고서 놀란 나머지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 김기설의 유해가 있는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가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강기훈의 전화를 받은 후 홍성은의 친구이며 저의 친구인 이정에게 전화하여 홍성은의 남자친구인 김기설이 분신하였던 것을 알려주면서 영안실에 가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후 학교선배인 김진수가 학원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김기설의 분신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김진수에게 영안실에 가보겠다고 말하자 김진수도 가겠다고 하여 12:00경 영안실 부근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문 : 김진수는 누구인가요

답 : 단국대학교 83학년 선배로 졸업 후 동문회인 '민주동문회' 간사로서 만나게 되었으며 강기훈의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문 : 김진수가 왜 전화를 하였는지요

답 : 김진수가 전화를 하여 분신 사실을 아느냐고 물어서 제가 김기설이며 홍성은의 남자친구라고 말하였습니다.

문 : 김진수가 김기설의 분신 사실에 대하여 진술인에게 특별히 전화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답 : 제 짐작으로는 방송에 전민련 소속이라고 하여 제가 강기훈과 사귀고 있으니 신원을 확인키 위하여 전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 : 그렇다면 김진수가 강기훈이나 전민련쪽에 확인하여 불 일이지 진술인에게 느닷없이 전화를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 저로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가서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 5. 8. 12:00전에 먼저 영안실에 도착하여 들어갈려고 하니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제지하면서 알아보려면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대책위 상황실로 가라고 하여 돌아오다가 김진수를 만나 함께 연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 : 연세대에 가서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 김진수와 연세대로 가서 학생회관 3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홍성은이가 나타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 : 홍성은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요

답 : 3층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홍성은이 계속 울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1층 로비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3층에서 홍성은을 만나니 홍성은은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분신했다고 답하고 성은이는 '분신했냐' 라고 말하며 '왜 만류하지 않았느냐' 고 말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강대에서 했다, 세브란스 갔다오는 길인데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 : 1층 로비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요

답 : 제가 홍성은이와 함께 올라가 달래주는 가운데 김진수가 데리고 왔는지는 잘 모르나 전민련에 관계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 1명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가 김기설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면서 신원파악이 안되고 부모를 알 수 없어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성은이 쇼핑가방에서 김기설의 수첩이라며 수첩 하나를 꺼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주었습니다. 성은이 그 당시 수첩 가운데서 기설의 아버지 전화번호가 초록색 필기구로 표시된 부분을 펴서 주었습니다.

문 : 그 수첩은 어떤 모양이던가요

답 : 전민련에서 만든 수첩으로 약간 길면서 까만 색이었습니다.

문 :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은 김기설의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술인이 먼저 알고 소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홍성은을 만나기전 김진수와 3층에 올라가면서 홍성은으로부터 수첩을 받은 전민련 소속 성명불상자를 만났으며 그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첩 이야기를 들어 홍성은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전민련 소속 성명불상자가 진술인에게 수첩에 대하여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답 : 김진수가 성명불상자를 아는 것 같았으며 김기설이 한양대학교 학생이라고 보도하는데 성명불상자도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김기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홍성은의 친구라고 하니

성명불상자가 김기설의 연락처가 불분명한데 홍성은이 김기설의 수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술인이 홍성은에게 수첩에 대하여 특별히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볼 이유가 있었나요

답 : 저로서는 김기설의 가족에게 연락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홍성은에게 수첩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는 어떤가요

답 :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보이고 얼굴은 둥글며 안색이 희고 중간체격과 170센치미터 정도의 키고 하늘색 사파리 모양의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문 :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난 후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 다시 3층으로 올라갔으며 올라가던 중 장준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성은은 장준호를 만나서 왜 못잡았느냐고 말하고 장준호는 새벽까지 김기설과 같이 있었는데 전화 걸려고 간다고 하여 놓쳤다고 하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장준호의 안내로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 전민련측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홍성은에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홍성은은 계속 울고 있었으며 그곳에 있던 여자 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여 홍성은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일어서 함께 나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문 : 장준호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5. 8. 처음 보았으며 홍성은이 김기설의 친구라고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호가 새벽까지 김기설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기설이 장준호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 : 전민련측에서 홍성은에게 기자회견을 하라고 하면서 무어라고 하던가요

답 : 그곳 방에서 전민련 사람들이 김기설이 새벽까지 전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있다 분신을 하였기 때문에 전민련으로부터 분신을 사주받은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에 따라 당국에서 수사를 할 계획 이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은은 전민련 소속이 아니며 김기설의 친구로 분신 전날 함께 있었

고 분신 당일 새벽에 김기설과 통화를 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기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문 : 기자회견을 마치고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 5. 8. 14:00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있던 방으로 다시 돌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속셈학원으로 갔습니다. 당일 18:00경 학원을 마치고 연세대로 가니 홍성은과 김진수가 없어 행방을 주변사람에게 물어본 즉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인 이정에게 전화로 19:00경 학생회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이정을 만났습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김진수와 홍성은을 만나 20:00경 세브란스 영안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김기설의 부모가 왔다는 것을 알고 김기설의 매형과 홍성은이 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분향을 하고 기다리다가 같은 학교 82학년 남성호가 분향하러 온 것을 만났습니다. 김기설의 파주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가 22:00경 모두 연세대로 다시 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원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23:00경 귀가하고 홍성은과 김진수, 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 연세대학교에서 5. 8. 홍성은 등과 나눈 대화 중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요

답 : 당일 연세대학교 3층 방에서 언제인지 모르나 홍성은에게 제가 김문정한테 전일 밤늦게 전화로 홍성은의 연락처를 묻는 것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김문정은 급하다고 하면서 홍성은의 연락처를 물었는데 그 의미가 김기설의 분신과 관련한 전화였느냐고 물어보니 홍성은이 김문정의 전화를 받았고 김기설의 분신계획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 평소와 같이 학원에 나갔다가 19:00경 연세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홍성은을 다시 만났고 김진수와 이정은 없었으며 같은 대학 85학년 한인수가 홍성은의 바지를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홍성은의 바지는 홍성은이 입을 바지란 의미입니다. 21:00경 저는 귀가하였는데 그 사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 : 5. 10.은 어떻게 하였는지요

답 : 학원에 있는데 홍성은이 오후에 전화를 하여 명동성당에서 추모제가 있다고 하여 19:00경 명동 소재 중앙극장 앞에서 저와 김진수 홍성은이 약속하여

만나 명동성당에 갔다가 21:00경 추모제가 종료되어 전민련 사무실로 강기훈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강기훈이 사무실쪽으로 와서 만나자고 하여 종로5가 전민련 사무실 부근의 호프집에서 4명이 모여 있다가 24:00경 귀가하였습니다.

문 : 5. 10. 15:00경 강기훈과 홍성은이 만난 것을 아는가요.

답 : 저는 듣지 못하여 모릅니다.

문 : 종로 5가 호프집에서 4명이 모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요.

답 :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 김기설과 관련된 4명이 모였다면은 분신에 대해서나 분신과 관련된 배후조사에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 김기설의 분신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강기훈은 전민련의 일로 바쁜 것 같았으며 김기설의 분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기훈은 연세대에 있는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 5. 11.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1. 15:00경 저는 파마를 하기 위하여 미장원으로 갔는데 그전에 홍성은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갈 것이냐고 물어보니 거절하여 혼자 가서 19:00경 미장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홍성은에게 전화하여 20:30경 화양리 소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홍성은은 울면서 고인을 위하여 하여야 할 도리를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인터뷰가 필요하면은 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는 등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문 : 그의 진술인이 홍성은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가요.

답 : 제가 보도를 통하여 김기설이 한양대학교 다니지 아니한 것을 알고 홍성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홍성은은 안산 나왔다 하고 말하여 제가 신문에서 한양대학교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확인하였다고 하니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의 학력에 대하여 홍성은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답 : 화를 내거나 그럴 수 있느냐라는 반응은 없어 이해심이 크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 카페에서 언제 헤어졌는가요.

답 : 22:00경 나와서 각자 집으로 갔으며 다음날인 5. 12. 각자 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 참석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 5. 12.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2. 10:00경 홍성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홍성은은 당일 김기설의 장례식이 있다고 알려주어 김진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11:30경 신촌로타리 홍익서점 부근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으나 어긋나 못 만나고 단국대 84학번인 방수연을 만났으며 12:30경 서강대에서 진수, 성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 장례행렬을 따라 가다가 종로 5가 소재 전민련 사무실에 들러 강기훈을 만나 함께 모란공원 묘지에 가서 19:00경 유해를 안장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22:00경 종로 5가에 도착하여 전일 갔던 호프집에서 저, 강기훈, 김진수, 홍성은 등이 술을 마시다가 24:00경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문 : 호프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요.

답 : 홍성은을 위로하는 내용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문 : 5. 13.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3. 19:00경 신촌로타리 다주쇼핑 앞에서 미리 약속하여 강기훈, 김진수, 방수연, 이정 등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신촌시장에 주점으로 가서 22:00경 성은이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은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일단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 성은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검찰청 직원이 와서 성은이 함께 검찰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여 일행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문 : 성은이 검찰청으로 간데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였는가요.

답 : 별일 없이 나올 줄 알았고 5. 14. 강경대군 장례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홍성은이 검찰청으로 소환받고 갔다면 언론매체에 이미 보도된 대로 김기설의 분신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주의의 아는 사람들이 조사받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상의하였는가요.

답 : 홍성은이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것에 대하여 제가 걱정을 하다가 5. 9. 연세대에서 홍성은을 만났을 때 홍성은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 김기설 소개와 관련하여 저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한 생각이 나서 강기훈 등에게 말하였습니다. 저의 짐작으로는 강기훈, 김진수 등이 모두가 홍성은이 저한테 말한 내용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모습을 비쳤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받으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강기훈 등은 김기설을 홍성은에게 소개할 때 제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강기훈의 관계에 대해서는 애인 사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전민련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저는 전민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문 : 그의 다른 말은 없었는가요.

답 : 조사받게 되면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언제 헤어졌는가요.

답 : 당일 24:00경 헤어져 귀가하였습니다.

문 : 5. 14.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4. 학원에서 오전경 홍성은의 집에 전화를 하니 아무도 받지 않았고, 오후경 홍성은의 집에 전화하여 아버지와 통화를 하여 홍성은이 검찰청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강기훈에게서 전화가 와 홍성은이 귀가치 않은 것에 대하여 서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마친 후 후배인 박수희를 만나 소설책 2권을 빌려주고 귀가를 21:30경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도 검찰청에서 소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5. 14. 21:30경 귀가하여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에게 친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와 관련하여 저에게도 검찰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놀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 5. 15.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5. 학원에서 오전경 성은이 집에 전화하니 받지 않았고, 오후 강기훈에게서 전화가 와서 성은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바로 귀가하였습니다.

문 : 홍성은이 소지하고 있는 수첩에 약도를 그려준 적이 있는가요.

답 : 1991. 3.말경 홍성은 소지의 전민련 수첩에 약도를 그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약도를 방수연이 산 부인파에 입원하여 그려주었습니다.

문 : 그 당시 다른 글이 있는 여백에 그려 주었는가요.

답 :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 면에 그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5. 5. 진술인과 강기훈, 홍성은, 김진수 등이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5. 5. 14:00경 강기훈, 홍성은, 김진수가 저희집에 찾아와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다가 23:00경 3인을 남겨두고 저만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문 : 그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있을 때 서로 다투거나 술에 취해 실수한 적이 없었고, 먼저 온 후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 강기훈과의 사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시오.

답 : 1990. 2. 하순경부터 사귀어 왔으며 사이는 매우 좋았으며 1991. 2.경 제가 일이 힘들고 강기훈이 연락이 없어 화를 낸 적이 있을 뿐 별다른 기록이 없었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대로 인가요.

답 :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이상 진술 외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만 조서를 읽어보니 김기설과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장준호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 장준호가 저희에게 말하길 누군가 김기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김기설이 전화걸러 간다고 하여 놓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기자회견 때 참석하여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임근재였고 저는 기자회견 때 처음 보는 사람으로 김기설의 또래로 보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

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영미
1991. 5. 1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임철
검찰주사(보) 안재호

91년 5월 19일

자료 가2-8 (동아, 91년 5월 19일)

91. 5. 19. B
동아
본신金基高씨 명의 遺書
自筆 아인듯
檢察

전민련사회부장 金基高
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
인 검찰은 18일 본신장소
인 서경대분관속에서 발
견된 金씨명의의 유서가
金씨 스스로 쓴 것이 아
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고서 필적을 구해 유서 필
적과 비교하면 결과 유인
이름도 글씨체가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
혔다.
검찰관계자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필적검정을
의뢰한 결과 이를 필적이
같은 것이어서 대안 검찰이
어떤 단서를 받았다고 고
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민
련에서 金씨가 작성한 것
에 대한 수사결과 모재야
단 체 회원인 20대 남자의
필적이 유서 필적과 유사해
이 사람의 행방을 추적할
것이 어렵겠다고 밝혔다.

이러나 제출한 유서
임지와 金씨의 양친구인
洪모씨(25)가 金씨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메모
필적은 유서 필적과 매우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발
견된 것이란 이유 전민련
이 제출한 유서 필적은
洪씨의 제출한 메모 필적
서는 金씨가 아닌 제삼의
인물인 의해 작성된 것이
로 보인다며 말했다.
검찰은 金씨 주변인물들
에 대한 수사결과 모재야
단 체 회원인 20대 남자의
필적이 유서 필적과 유사해
이 사람의 행방을 추적할
것이 어렵겠다고 밝혔다.

91년 5월 20일

자료 가1-62 (수사기록 472)

기안용지
(전화 530 - 4935)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666
시행일자 1991. 5. 20.
주임검사 박경순
기안책임자 임영근
수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발신명의 검사장
제목 수사협조의뢰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
사사건을 수사중 수사상 필요에 의하
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의 규
정에 의거 귀 연합에서 보관중인 아래
와 같은 물건을 원상 그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사자 김기설이 사용하던 전국민족
민주운동연합 수첩 1권. 끝.

자료 가1-63 (수사기록 473~488)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 검사 박경순
제목 : 수사보고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분신투신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인 서준식, 동 김선택, 동 김진수, 동 장준호,
동 임근재를 조사하고자 1991. 5. 20. 오후 2시에 당청
1015호 박경순 검사실로 출두하도록 동월 18. 출석요
구서를 발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동인들

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사치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참고인 출석요구서 사본 및 특수우편물 수령증.

1991. 5. 20.
검찰주사보 임영근

* 첨부 자료 <생략> (수사기록 474~488)

Form with stamps and text: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관기간, 수신처, 시행일자, 보류검사, 기안책임자, 영수증, 국문민족민주운동연합, 수사협조의뢰,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은 수사상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귀연합에서 보관중인 아래와 같은 물건을 원상 그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사자 김기설이 사용하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첩 1권. 끝.

▣자료 가-1-64 (수사기록 489)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남기춘
제목 수사보고

명에 의하여, 강기훈에게 금일 15:00경까지 당청 1015호 검사실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지참하고, 강기훈이 온산하고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가진 장소인 명동성당에 입하여 조순창신부를 통하여 명동성당 농성단 책임자라고 자처하는 김민수에게 소환장을 전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끝.

1991. 5. 20.
검찰주사보 라종규

▣자료 가-1-65 (수사기록 490~491)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박경순
제목 수사보고

명에 의하여, 당청 강력23110 - 12666호 수사 협조의뢰공문을 지참하고 서울 종로구 충신동 소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 공문접수를 요청한 바, 동 연합 정책실 차장 양재원 등 8-9명의 직원들이 "특수우편송달 등 일반 관례에 따른 우송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공문을 가져온 저의가 무엇이나, 동 연합 사무실에는 협조요구한 김기설의 수첩도 없고, 고위간부들은 모두 수배중인 상태라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접수할 수 없다"는 등으로 한동안 공문접수를 거절한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12:15경 동 양재원이 동 공문을 접수하였으므로 이에 수사보고 합니다.

첨 부 : 전민련 정책실 차장 양재원 명의 접수증 1부. 끝.

서울지방검찰청 강력과
수사사무관 최백기
검찰주사보 김형규
" 이부환

* 첨부 자료 <생략> (수사기록 491)

▣자료 가-1-66 (수사기록 492~493)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 수색 영장

영장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피의자 신찬석
생년월일 불상
직업 중앙인영 필적감정원 대표
주거서울
압수할 물건 편지의 필적
수색할 장소 서울
신체, 물건
압수 사유 : 별지와 같음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본 영장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집행할 수 있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29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윤석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20.
판사 이규진

집행일시 19년 월 일 시 분
압수할 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별 지"

0.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옥상에서 김기설(25)이 전신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투신현장의 유류품중에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통이 발견되었는바, 김기설의 유족이 제출한 김기설의 자필필적과 위 유서의 필적은 상이한 반면, 유서의 필적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강기훈이 1987. 4 옥중에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편지의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과의 동일성 여부를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위 편지의 필적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가-1-67 (수사기록 494~496)

진술서

성명 최규성(崔圭成) 성별 남
연령 41세 (1950. 24생)
주민등록번호
본적 전북
주거 서울
직업 상업
직장 (주)동주무역상사

위의 사람은 김기설 변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저는 (주)동주무역상사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김기설씨 소유 수첩을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본인에게 전달되었고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을 위하여 본인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첩의 전달 행로

○ 수첩은 홍성은씨가 8일 12:20경 연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전민련 선전국 부장 원순용씨에게 전달되었다 합니다(이 자리에는 김진수씨가 함께 있었다고 함).

○ 8일 오후 전민련 편집실 부장이며 자료 담당인 최재인씨가 관련자료를 수집하면서 수첩을 건네받았다 함.

○ 범국민 대책회의 총무국에서 관련자료를 함께 보관하였고 보관자를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부장인 '이보은'이라 함. 이후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범국민 대책회의 사물함 속에 계속 보관되어 오다가 5.18일 전민련 사무실로 다른 문서와 함께 봉합되어 옮겨짐.

○ 5월 19일 오전 전민련 조직국 부장 김현수씨가 수첩을 찾다가 12시경 성남의 전민련 조통위 부장인 이보은에게 연락했으나 예배중이라 통화하지 못하고 동일 2시경에 통화가 되어 수첩의 소재를 확인 끝이어서 찾았다는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함.

○ 이후 김현수씨가 수첩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범국민 대책회의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으로 가져갔음. 상기 내용은 전민련 조통위 부장인 이보은씨와 조직국장인 김현수씨의 진술을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수첩의 상태가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속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기재된 3장은 떨어져서 끼워져 있고 전화번호를 기재하는란과 전민련 규약 중 제4장과 5장이 인쇄된 부분 1장은 없고 제일 뒤 모눈종이로 된 3장이 뜯어져서 없는 상태임.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임.

1991. 5. 20.
진술인 최규성

202 자료 가-1-69

□자료 가-1-68 (수사기록 502~504)

압 수 조 서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년 5월 20일 18시 00분 서울지방검찰청 1020호 검사실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2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압 수 경 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최규성이 자진 출석하여 변사자 김기설의 분신 이후 홍성은이가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민련 선전국 부장 원순용이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전민련 편집실 부장이며 자료담당인 최재인에게 건네주어 총무국에서 관련자료와 같이 보관하였으며 이를 조직부 국장 김현수가 이를 찾아 5. 19. 22:30경 명동성당내에서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김기설 소유의 수첩이라고 진술하며 임의제출하므로 영장없이 이를 압수하다.

압 수 목 록

증거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11-1	수첩	1권	최규성	김기설(안양시 호계동915-23)	

□자료 가-1-69 (수사기록 499~501)

서울특별시
(경비 2672번)

1991. 5. 20.

강력(강) 23115-17639
수 신 서울지방검찰청장

참 조 1001호, 1007호 검사실
제 목 범죄 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강력23115-16624호로 의뢰한 분신 추락 사건 현장 지문의 감정결과를 별첨 감정서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 : 감정서(사본) 1부 -끝-

경 찰 국(강력 과장 전결)

감 정 서

강력23115 - 16624(91. 5. 13.) _____22)
1007호, 1001호 검사)으로부터 의뢰한 현장지문을 감정
한 결과 다음과 같음.

1. 감정자료

가. 감정물 : 14점 (서울지검 1007호 입찰 검사)
푸라스틱 신나통 2개, 비닐봉지 1개, 일회용 라이다
1개, 흑표지 2매, 한겨레신문 4장, 지문전사판 4매.

나. 감정물 : 18점 (서울지검 1001호 과성도 검사)
대봉투 3매, 유인물 5매, 명함 2매, 지문전사판 8매.

다. 변사자 '김기설'의 좌우수
십지 지문.

2. 감정사항

전기 1 '가, 나' 항의 감정자료에서 검출되는 지문
과 '다' 항의 감정자료와 대조로 동일한 지문 여부.

22) 복사 불량으로 판독 불가.

3. 감정방법
'생략'

4. 감정결과

전기 1 '가, 나' 항의 감정물 32점(고체법, 액체법,
강력순간접착제접을 이용 잠재지문 검출 및 채취)에
현출된 지문을 식별 감정한 바,

◦ 감정물 14점(1007호 검사)중 6점 (푸라스틱 신나
통 : 제상문 2개, 문형불상 1개, 일회용 라이다 : 제상
문 1개, 문형불상 1개, 장문 1개, 비닐봉지 : 와상문 1
개, 한겨레신문 : 와상문 1개, 문형불상 1개)에서 지문
9개.

◦ 감정물 18점(1001호 검사)중 2점(명함 : 문형불상
1개, 파인애플 깡통 지문전사판 : 제상문 1개)에서 지
문 2개 도합 11개가 현출되며

◦ 동 지문 11개와 변사자 '김기설'의 좌우수 십지
지문과 대조 감정한 결과, '김기설'의 좌수(5개)는 동
일한 지문이 아니며, 우수지문(5개)는 화상으로 지문
이 불완전하게 채취되어 대조불능임.

◦ 참고 : 관계인 등 대조상대자 인적사항(성명, 주
민등록번호, 지문번호)을 의뢰할 경우에 감정가능한
지문이며, 자료 대조로 신원확인은 불가능한 지문임.

치안본부 수사부 감식과
경위 이장홍

☐자료 가3-7

검찰의 유서대필 조작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18일 검찰은 '김기설씨 유서의 필체가 본인 것이 아니며 전민련 모 간부의 필체와 같다'고 발표하였고 언론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전민련 모 간부가 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단정 보도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전연 사실과 다른 악의에 찬 왜곡 날조이며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온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궁지에 몰린 현 정권이 전국민적 항쟁을 일시적이거나 누그러뜨리려는 치졸한 조작극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발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순한 의도의 발로라 생각되지만 사실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자료를 공개한다.

1. 고 김기설 동지의 필체는 본인의 수첩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듯이 유서의 필체는 고 김기설 동지가 사용하던 필체와 동일하다. 근거자료 : 고 김기설 동지의 수첩 사본

2. 검찰이 대필의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 강기훈씨의 필체는 유서의 필체와 전혀 다르다. 근거자료 : 강기훈씨가 쓴 편지 사본 1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강기훈씨가 87년 4월 마산교도소 복역 당시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첨부한다).

아울러 강기훈씨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밀실수사를 통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에서라면 검찰측 조사에도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

우리는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 항거의 고귀한 뜻을 왜곡날조하려는 검찰의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여론 조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자의든 타의든간에 이러한 검찰의 의도에 일조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특히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아울러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 첨부자료²³⁾
1. 고 김기설 동지의 수첩사본
 2. 고 김기설 동지의 필체가 있는 서류봉투 사본
 3. 고 김기설 동지의 필체가 있는 파일 사본
 4. 강기훈씨가 쓴 편지
 5. 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

1991년 5월 20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23) 1)은 I책 717쪽, 2)는 II책 822쪽, 3)은 II책 826쪽, 4)는 II책 830쪽, 5)은 I책 27쪽 참조

◎ 91년 5월 21일 ◎

☐자료 가1-70 (수사기록 505)

기안용지 (전화: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110-012751
 시행일자 1991. 5. 21.
 주임검사 윤석만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 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3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유서 2매.
2.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3. 강기훈이 1987. 4. 옥중에서 동생에게 보냈다는 편지. 끝.

☐자료 가1-71 (수사기록 506)

기안용지 (전화: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110-012752
 시행일자 1991. 5. 21.
 주임검사 윤석만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 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3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2.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3. 김기설 작성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 1매. 끝.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 23110-012751	기안용지 (전화:530-4941)	시행일자	1991. 5. 21.
수신처 분류기호	영구·준영구 10. 5. 3. 1.	검 사 장		
시행일자	1991. 5. 21.	합 조 기 관	문 서 감 정 실	1991. 5. 20 윤석만
수신처 분류기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문서감정실장	발 신 명 의	검 사 장	1991. 5. 20 윤석만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 의뢰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 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3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서 2매.				
2.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3. 강기훈이 1987. 4. 옥중에서 동생에게 보냈다는 편지. 끝.				